

EU산 쇠고기 수입허용 영향 분석: 폴란드, 독일, 스페인, 벨기에, 스웨덴

송우진 · 명수환 · 김경진



EU산 쇠고기 수입허용 영향 분석: 폴란드, 독일, 스페인, 벨기에, 스웨덴

송우진 · 명수환 · 김경진



연구 담당

송우진 | 연구위원 | 연구 총괄, 제1~7장 집필

명수환 | 전문연구원 | 제3, 4, 6장

김경진 | 전문연구원 | 제2, 5장

정책연구보고 P2026-01

EU산 쇠고기 수입허용 영향 분석:

폴란드, 독일, 스페인, 벨기에, 스웨덴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26. 4.

발 행 인 | 한두봉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크리커뮤니케이션

I S B N | 979-11-6149-846-1 95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우리나라 쇠고기 시장은 한우 중심의 국내 생산과 미국·호주산 중심의 수입 쇠고기 공급이 함께 수급을 형성하고 있으며, 최근 한육우 사육 마릿수 감소와 국내 산 쇠고기 공급 축소 가능성 속에서도 수입 쇠고기의 시장 비중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등 EU 4개국 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독일, 폴란드, 스페인, 벨기에, 스웨덴 등 5개국에 대해서는 수입허용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들 국가는 생산 규모, 수출 여력, 가격 수준, 품질 특성, 물류 여건 등이 서로 달라 수입허용 시 국내 쇠고기 수급, 수입선 다변화, 한우 산업의 경쟁 여건에 미치는 영향도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는 EU 5개국산 쇠고기 수입허용이 국내 쇠고기 시장과 한육우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 관련 제도와 EU 회원국별 수입허용 절차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EU 및 대상국의 소 사육, 쇠고기 생산, 교역 구조, 수출단가, 해상운송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KREI-KASMO 모형을 활용하여 EU산 쇠고기 수입허용에 따른 국내 수입량, 한우 도매가격, 사육 마릿수, 생산액 변화 등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였다.

이 보고서가 EU산 쇠고기 수입허용 절차와 국내 시장 영향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지원하고, 한우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입 쇠고기 시장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연구 수행 과정에서 유익한 의견을 주신 관계 전문가와 자료 제공에 협조해 주신 관련 기관에 감사드린다.

2026.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한 두 봉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폴란드, 독일, 스페인, 벨기에, 스웨덴 등 EU 5개국산 쇠고기 수입허용이 국내 쇠고기 시장과 한육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기존 연구가 주로 미국·호주산 쇠고기 수입 확대와 FTA 관세 인하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한 데 비해, 본 연구는 EU 개별 회원국의 수입허용 절차와 국가별 공급 여건을 반영하여 국내 영향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짐.

연구 방법

- 문헌 분석, 수입허용 규정에 따른 국가별 위치, 통계 분석, 전망모형 구축, 시나리오 분석을 결합하여 EU산 쇠고기 수입허용의 국내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FAO, Eurostat, UN Comtrade, 관세청,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업전망 자료 등을 활용하여 EU와 한국의 쇠고기 생산·교역·수입 구조를 분석함.
- KREI-KASMO 모형을 활용하여 EU산 쇠고기 수입허용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함. 분석기간은 2026~2035년 10년으로 설정하고, SPS 조치 해제 전후의 베이스라인과 시나리오 전망치를 비교함.

연구 결과

- EU27은 세계 주요 쇠고기 생산 지역 중 하나이나, 최근 소 사육 마릿수와 쇠고기 생산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EU27의 소 사육 마릿수는 2020년 7,655만 마리에서 2024년 7,190만 마리로 감소하였고, 쇠고기 생산량도 같은 기간 690만 톤에서 666만 톤으로 감소함.
- 수입허용 신청 5개국 중 독일은 사육 마릿수와 생산량이 가장 큰 국가이나, 낙농 기반 비중과 EU 역내 교역 의존도가 높음. 폴란드는 생산량과 수출지 향성이 크고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스페인은 고기소 기반이 뚜렷하고 생산량이 안정적인 국가로 평가됨.
- 벨기에와 스웨덴은 사육 및 생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대량 공급원으로서의 영향은 제한적임. 다만 벨기에는 품종·도체수율 등 특수성, 스웨덴은 동물복지·친환경·안전성 이미지를 활용한 제한적 시장 진입 가능성이 있음.
- EU27 쇠고기 교역은 역내 교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역외 수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동아시아 수출 비중도 미미하여 EU산 쇠고기의 한국 시장 진입은 기존 수출 구조의 단순 연장이 아니라 신규 시장 개척 성격이 강함.
-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시장은 미국산과 호주산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음. 2025년 기준 쇠고기 수입량은 46만 8천 톤이며, 미국산과 호주산이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함. EU산 쇠고기 수입실적은 아직 제한적임.

- EU산 쇠고기 수입허용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우 고급육을 직접 대체하기보다는 기존 수입 쇠고기 시장 내부의 원산지 선택지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큼.
- KREI-KASMO 분석 결과, EU산 쇠고기 수입허용 시 2026~2035년 10년간 한육우 생산액은 베이스라인 대비 연평균 0.06~0.1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 한우 도매가격은 10년간 베이스라인 대비 연평균 0.03~0.08% 하락하고,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0.02~0.05%, 쇠고기 생산량은 0.02~0.0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 전체 쇠고기 수입량은 베이스라인 대비 연평균 0.04~0.0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EU산 쇠고기 수입 증가분의 상당 부분은 미국산, 호주산 및 기타국산 쇠고기의 일부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큼.
- EU산 쇠고기 수입허용으로 인한 농업생산액 감소액은 10년간 연평균 38억~88억 원 수준으로 분석됨. 이 중 한육우 생산액 감소가 전체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돼지·육계 등 소비 대체 품목에서도 간접적 생산액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

정책 제언

- EU산 쇠고기 수입허용 절차가 진행 중인 국가에 대해 단계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독일·폴란드·스페인은 쇠고기 수입허용 절차상 진전 속도가 빠르므로 수입위생조건 협의, 작업장 승인,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함.
- EU산 쇠고기 수입 확대의 영향은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므로, EU 전체를 단일 공급원으로 보기보다 국가별 생산 기반, 수출 여력, 가격 수준, 물류 조건, 품질 이미지를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폴란드와 스페인은 가격경쟁력과 수출지향성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외식·가공용 원료육 시장에서 기존 수입산과의 대체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함. 독일은 생산 규모가 크지만 역내 교역 의존도와 한국 시장 진입 유인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EU산 쇠고기가 기존 미국산·호주산 수입육을 일부 대체할 가능성이 크므로, 국내산과 수입산 간 경쟁뿐 아니라 수입산 내부의 원산지 간 대체관계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음.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5

제2장 쇠고기 수입 관련 규정

1.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 관련 기본 규정	9
2. 현재 쇠고기 수입허용 국가	11
3. EU 회원국별 쇠고기 수입허용 현황	12

제3장 EU의 쇠고기 산업

1. EU의 소 사육 및 쇠고기 생산 현황	15
2. 수입허용 신청 5개국 쇠고기 산업 현황	21

제4장 EU의 쇠고기 교역

1. EU의 쇠고기 교역 동향	31
2. EU27 주요 국가의 쇠고기 수출 동향	36
3. EU의 해상운송 환경	52

제5장 우리나라의 쇠고기 산업 현황

1. 소 사육 현황 및 쇠고기 생산 현황	59
2. 쇠고기 수입 현황	64

제6장 EU산 쇠고기 수입허용에 따른 파급영향 분석

1. 분석 시나리오	71
2. 분석 결과	76

제7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83
2. 결론	86

참고문헌	91
------------	----

제3장

〈표 3-1〉 주요 국가별 소 사육 마릿수	16
〈표 3-2〉 주요 EU27 회원국별 소 사육 마릿수	17
〈표 3-3〉 주요 국가별 쇠고기 생산량	19
〈표 3-4〉 EU 회원국별 쇠고기 생산	20

제4장

〈표 4-1〉 EU27 쇠고기 교역 동향(HS 0201/0202)	31
〈표 4-2〉 EU27의 역외 쇠고기 수출 동향(HS 0201/0202)	33
〈표 4-3〉 EU27의 역외 쇠고기 수입 동향(HS 0201/0202)	34
〈표 4-4〉 독일의 쇠고기 수출 동향(HS 0201/0202)	37
〈표 4-5〉 폴란드의 쇠고기 수출 동향(HS 0201/0202)	38
〈표 4-6〉 스페인의 쇠고기 수출 동향(HS 0201/0202)	40
〈표 4-7〉 벨기에의 쇠고기 수출 동향(HS 0201/0202)	41
〈표 4-8〉 스웨덴의 쇠고기 수출 동향(HS 0201/0202)	43
〈표 4-9〉 프랑스의 쇠고기 수출 동향(HS 0201/0202)	45
〈표 4-10〉 아일랜드의 쇠고기 수출 동향(HS 0201/0202)	47
〈표 4-11〉 덴마크의 쇠고기 수출 동향(HS 0201/0202)	48
〈표 4-12〉 네덜란드의 쇠고기 수출 동향(HS 0201/0202)	50
〈표 4-13〉 쇠고기 수출국별 단가(호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EU 9개국 역외)	52
〈표 4-14〉 EU 주요국에서 부산까지의 냉동컨테이너 운임	55

제5장

〈표 5-1〉 소 사육 농장 수 및 사육 마릿수	60
〈표 5-2〉 소 도축 및 쇠고기 수급	61
〈표 5-3〉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 동향	65
〈표 5-4〉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 동향(HS 0201/0202)	66
〈표 5-5〉 일본의 쇠고기 수입 동향(HS 0201/0202)	67

제6장

〈표 6-1〉 EU산 쇠고기 수입허용 시나리오	74
〈표 6-2〉 우리나라와 일본의 쇠고기 수입실적	76
〈표 6-3〉 EU산 쇠고기 수입허용 영향 분석: 한육우 베이스라인	77
〈표 6-4〉 EU산 쇠고기 수입허용 영향 분석: 한육우 분석 결과	78
〈표 6-5〉 EU산 쇠고기 수입허용 영향 분석: 농업 부문 전체	80

제3장

〈그림 3-1〉 EU27의 소 사육 마릿수 추이	17
〈그림 3-2〉 EU27의 쇠고기 생산 추이	20
〈그림 3-3〉 독일의 소 사육 마릿수	22
〈그림 3-4〉 독일의 쇠고기 생산량	23
〈그림 3-5〉 폴란드의 소 사육 마릿수	24
〈그림 3-6〉 폴란드의 쇠고기 생산량	25
〈그림 3-7〉 스페인의 소 사육 마릿수	26
〈그림 3-8〉 스페인의 쇠고기 생산량	27
〈그림 3-9〉 벨기에의 소 사육 마릿수	28
〈그림 3-10〉 벨기에의 쇠고기 생산량	28
〈그림 3-11〉 스웨덴의 소 사육 마릿수	29
〈그림 3-12〉 스웨덴의 쇠고기 생산량	30

제4장

〈그림 4-1〉 EU27의 대륙별 쇠고기 수출 구조(HS 0201/0202)	32
〈그림 4-2〉 EU27 주요 쇠고기 수출국가별 비율 (EU27 역내외, 2020~2024년 평균)	35
〈그림 4-3〉 독일의 대륙별 쇠고기 수출 구조(HS 0201/0202)	36
〈그림 4-4〉 폴란드의 대륙별 쇠고기 수출 구조(HS 0201/0202)	38
〈그림 4-5〉 스페인의 대륙별 쇠고기 수출 구조(HS 0201/0202)	39
〈그림 4-6〉 벨기에의 대륙별 쇠고기 수출 구조(HS 0201/0202)	41
〈그림 4-7〉 스웨덴의 대륙별 쇠고기 수출 구조(HS 0201/0202)	42
〈그림 4-8〉 프랑스의 대륙별 쇠고기 수출 구조(HS 0201/0202)	44

〈그림 4-9〉 아일랜드의 대륙별 쇠고기 수출 구조(HS 0201/0202)	46
〈그림 4-10〉 덴마크의 대륙별 쇠고기 수출 구조(HS 0201/0202)	48
〈그림 4-11〉 네덜란드의 대륙별 쇠고기 수출 구조(HS 0201/0202)	49

제5장

〈그림 5-1〉 한육우 사육농가수와 사육 마릿수	60
〈그림 5-2〉 한국 대륙별 쇠고기 수입실적(HS 0201/0202)	68
〈그림 5-3〉 일본의 대륙별 쇠고기 수입실적(HS 0201/0202)	69

제6장

〈그림 6-1〉 SPS 조치 해제 시 영향 분석 방법	72
-------------------------------------	----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배경과 필요성

- 우리나라는 아일랜드,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4개 EU 회원국에 대해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있음. 여기에 더해 독일, 폴란드, 스페인, 벨기에, 스웨덴 5개국은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허용 절차가 진행 중인 국가로, 독일·폴란드·스페인은 5단계를 완료한 상태이고 벨기에·스웨덴은 4단계를 진행 중인 상태임. 진행 속도의 차이는 있으나, 제도적 절차가 일정 수준 이상 진전되었으므로 이들 5개국 쇠고기가 국내 시장에 순차적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EU 8개 수입허용 요청국에는 위의 5개국에 더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3개국이 포함되어 있음. 이들 3개국은 우리나라 수입허용 절차상에서는 초기 단계에 위치하지만, EU 내부에서는 일정 규모의 쇠고기 생산 기반과 대

외 수출 역량을 갖춘 국가로 평가되는 만큼 향후 절차 진전 속도에 따라 신규 쇠고기 공급원으로 부상할 잠재력이 있음. 결과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5개국을 중심으로 오스트리아·이탈리아·포르투갈까지 포함한 8개국이 단계적으로 수입허용 범위에 편입될 경우, EU산 쇠고기 공급 기반이 구조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환경임.

○ 국내 쇠고기 시장은 한우와 미국·호주산 중심의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로 인해 한·EU FTA 관세 감축 일정, OIE 광우병 위험 지위, WTO SPS 규범 등 통상·위생 규범이 함께 작용하는 시장임. 이러한 조건에서 EU 5개국산 쇠고기 수입이 추가로 허용되면 한우 산업과 기존 수입선, 시장 세분화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그럼에도 기존 연구는 주로 한·미, 한·호주 FTA를 전제로 미국·호주 중심의 수입 확대 효과를 분석한 경우가 많고, EU 개별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허용에 따른 국내 영향 분석은 매우 제한적임. 특히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5개국을 대상으로 수입허용 시점과 속도, 대상국 조합을 반영한 전망모형을 구축하고, 수입량 시뮬레이션 결과를 국내 수급·가격·농가 소득과 연계하여 평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임. 이러한 점에서 폴란드·독일·스페인·벨기에·스웨덴 5개국을 중심으로 EU산 쇠고기 수입허용의 국내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

1.2. 연구 목적

○ 이에 본 연구는 폴란드, 독일, 스페인, 벨기에, 스웨덴 등 EU 5개국의 쇠고기 수입허용이 국내 쇠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음. 구체적으로는

- 첫째,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허용 절차를 기준으로 대상 5개국의 절차 진행 현황과 특징을 정리하는 것임.
- 둘째, 대상국의 쇠고기 생산 구조, 교역 규모, 가격 수준, 품질 특성, 수출 가능성을 검토하여 한국 시장 진입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임.
- 셋째, 전망모형과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EU 5개국산 쇠고기 수입허용이 수입량, 국내 가격, 한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평가하고, 가격과 품질 경쟁력에 따른 시장 진입 가능성은 정성적 평가하는 것임.

2. 연구 내용 및 방법

2.1. 연구 내용

○ EU 쇠고기 산업과 대상국 현황 분석

- EU 전체의 쇠고기 생산 및 교역 구조를 정리
- 이미 수입이 허용된 아일랜드,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의 국내 수입 동향 검토
- 폴란드, 독일, 스페인, 벨기에, 스웨덴 등 대상 5개국의 쇠고기 산업 구조 분석

○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허용 제도와 EU 5개국의 절차 진행 현황 정리

- 쇠고기 수입허용 8단계 절차의 구조와 법적 기반을 정리
- 수입허용 4개국의 사례 검토
- 폴란드, 독일, 스페인, 벨기에, 스웨덴의 수입허용 절차 진행 경과 정리

- 전망모형을 구축하고 EU 5개국 수입허용 시 수입량 시뮬레이션 수행
 - 시나리오별로 EU 5개국산 수입량, 전체 쇠고기 수입량, 국내 가격, 한우 도축 두수, 농가 소득 변화를 추정함.

2.2.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문헌 분석, 국가별 수입허용 단계 검토, 통계 분석, 전망모형 구축, 시나리오 분석을 결합한 종합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음.
- 첫째, 문헌 분석을 통해 국내외 쇠고기 시장, 통상정책, SPS 제도, EU 축산정책, 쇠고기 수입 개방 영향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함. 국내 학술논문, 정책보고서, 정부 자료, 국제기구 자료를 활용하여 쇠고기 시장 개방과 국내 영향 분석에 적용된 기존 방법론을 정리함.
- 둘째, 수입허용 규정에 따른 국가별 현황을 비교함.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허용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이미 수입이 허용된 아일랜드,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의 사례와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폴란드, 독일, 스페인, 벨기에, 스웨덴의 현황을 비교함.
- 셋째, 국내외 통계자료를 활용한 시장 구조 분석을 수행함. 국내 자료로는 관세청 수입통계, 검역본부 수입검역 자료, 통계청 축산물 생산·가격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 등을 활용함. 국제 자료로는 Eurostat, UN Comtrade, EU 집행위원회, 각국 농업·축산 관련 기관 자료를 활용함.

- 넷째, 전망모형과 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함. 국내 쇠고기 수급 구조와 수입 수요 함수를 반영한 전망모형을 구축하고, EU 5개국산 쇠고기 수입허용 시 수입량 변화를 시뮬레이션 분석함. 시나리오별로 EU 5개국산 수입량, 전체 쇠고기 수입량, 국내 도매·소매 가격, 한우 도축 두수, 농가 소득 변화 등을 추정함.
- 마지막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모형 구조, 변수 설정, 시나리오 가정, 분석 결과 해석을 보완함.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쇠고기 시장 개방과 수입 확대의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크게 FTA 효과 분석, 수입 쇠고기와 한우의 대체관계 분석, 국내 한우 수급모형 구축, SPS 조치 해제에 따른 수입개방 영향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이들 연구는 쇠고기 시장 개방이 국내 수급과 가격, 생산자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였으나, EU 개별 회원국의 수입허용 가능성을 반영한 분석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김윤식(2006)은 부분균형모형을 활용하여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인하가 쇠고기 수입량과 국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임. 이 연구는 수입산 간 대체관계와 국내산·수입산 간 대체관계를 모형 구조에 반영하고, 관세 인하 폭에 따른 수입량 변화, 한우 가격 변화, 소비량 변동을 시뮬레이션함. 다만 분석의 초점은 FTA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에 있으며, 특정 국가의 위생·검역 절차 진행에 따른 신규 수입허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음.

- 이형우 외(2016)는 한우고기와 수입 쇠고기 시장의 차별화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 공적분 검정, VECM 분석, 수요함수 추정을 통해 한우, 수입 냉장 쇠고기, 수입 냉동 쇠고기 간 가격·수요 관계를 검토하고, 보관 형태와 품질 수준에 따라 시장이 일정 부분 분리되어 있음을 밝힘. 이 연구는 국내 쇠고기 시장을 단일 시장으로 보지 않고, 냉장·냉동, 국내산·수입산, 품질 수준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연구로 의의가 있음.
- 김충현 외(2018)는 쇠고기 이력제 자료를 활용하여 한우 개체 기준 수급모형을 구축함. 코호트 요인법을 이용해 연령별·성별 사육 마릿수를 추정하고, 경제 변수와 결합하여 한우 공급 및 도축 전망에 활용 가능한 구조를 제안하였음. 이 연구는 EU산 쇠고기 수입허용 문제를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국내 한우 공급 모듈을 설계하고 수급 전망에 활용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음.
- 한석호 외(2017)는 EU산 쇠고기에 대한 SPS 조치 해제가 우리나라 쇠고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Price-wedge 방법을 활용하여 SPS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를 추정하고, KREI-KASMO 부분균형모형에 수입수요 함수를 연계하여 EU산 쇠고기 수입허용 시 한우 생산액 감소, 축종 간 소비 대체 효과, 농업부문 파급효과를 사전적으로 분석함. 다만 해당 연구는 EU산 쇠고기를 하나의 수입원으로 접근한 성격이 강하며, 현재 수입허용 절차가 진행 중인 개별 회원국의 공급 능력과 절차 진행 속도, 국내 진입 가능성을 국가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쇠고기 시장 개방의 국내 영향 분석에는 부분균형모형, 수입수요함수, 수급모형, 가격·수요 관계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어 왔음.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EU 5개국의 수입허용 절차를 반영하여 국

가별 수출 가능성, 가격·품질 특성, 시나리오별 수입량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인 상황임.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모형적 성과를 활용하되, 분석 단위를 EU 전체가 아니라 폴란드, 독일, 스페인, 벨기에, 스웨덴으로 세분화하고, 수입허용 절차와 시장 진입 가능성을 결합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짐.

2

쇠고기 수입 관련 규정

1.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 관련 기본 규정

-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지정 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국가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관리됨. 쇠고기는 가축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므로, 수입 가능 여부는 수입금지지역 지정 여부와 국가별 수입위생조건 제정 여부에 따라 결정됨.
- 쇠고기 수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국가가 쇠고기 수입금지지역에서 제외되어야 함. 이후 해당 국가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이 제정·고시되어야 하며, 수출작업장 승인,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수입검역 절차 등이 완료되어야 실제 수입이 이루어짐. 따라서 특정 국가가 수입허용 절차상 진전된 단계에 있더라도, 수입위생조건 고시와 작업장 승인 등 후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반입이 불가능함.

○ 국가별 수입위생조건은 허용 부위, 수출 가능한 쇠고기의 범위, 특정위험물질 제거, 도축·가공장 승인, 수출국 정부의 검역증명, 질병 발생 시 조치 등을 규정함. 특히 소해면상뇌증(BSE)과 관련해서는 수출국의 위험 지위, 특정위험물질 제거, 연령 조건, 검역증명 요건 등이 중요하게 검토됨. 또한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된 이후에도 수출국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적 수입 중단 등의 조치가 가능함.

○ 따라서 쇠고기 수입 관련 규정은 단순한 통상 절차가 아니라 위생·검역, 식품 안전, 가축전염병 예방이 결합된 제도라고 볼 수 있음. EU 회원국산 쇠고기 수입허용 여부도 이러한 절차에 따라 국가별로 별도 검토되며, EU 전체가 하나의 단위로 일괄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별로 수입위험분석과 수입위생조건 제정 절차를 거쳐야 함.

○ 쇠고기 수입 위험평가 8단계

- ① 수입허용 가능성 검토
- ② 가축위생설문서 송부
- ③ 답변서 검토
- ④ 현지조사
- ⑤ 수입허용 여부 결정
- ⑥ 수입위생조건 협의
- ⑦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
- ⑧ 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2. 현재 쇠고기 수입허용 국가

- 현행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총 11개국임. 해당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미국, 캐나다, 칠레, 우루과이,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임. 이들 국가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국가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제정·고시된 국가임.
- 지역별로 보면 아메리카·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미국, 캐나다, 칠레, 우루과이가 수입허용국에 포함됨. EU 회원국 중에서는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등 4개국이 수입허용국에 해당함.
- EU 회원국 중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에 대해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되어 있음. 이에 따라 EU산 쇠고기의 국내 시장 진입 경로는 이미 일부 형성되어 있으나, 실제 수입 규모는 아직 제한적인 수준임. 이는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이 미국산과 호주산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EU산 쇠고기의 가격 경쟁력, 물류 조건, 원산지 인지도, 수입업체의 취급 의사 등이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현재 수입이 허용된 EU 4개국은 향후 추가 EU 회원국의 수입허용 여부를 검토하는 데 참고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음. 다만 EU 회원국이라 하더라도 국가별 가축위생 상황, BSE 관련 관리 체계, 도축·가공장 관리 수준, 수출검역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추가 회원국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입위험분석과 수입위생조건 협의가 필요함.

3. EU 회원국별 쇠고기 수입허용 현황

3.1. 이미 수입허용된 EU 회원국

- 현재 우리나라에 쇠고기 수입이 허용된 EU 회원국은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등 4개국임.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2019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되었으며, 프랑스와 아일랜드는 2024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됨.
-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는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허용국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수입 가능 여부는 국가별 가축질병 발생 및 검역 조치에 따라 다름.
 -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2019년 수입위생조건이 제정된 이후 소량의 수입 실적 있음.
 - 그러나 네덜란드는 2023년 비정형 BSE 발생으로 수입검역이 중단된 이력이 있음.
- 프랑스와 아일랜드는 2024년 수입 절차가 완료되어 수입이 가능해졌으나, 현재는 별도 질병 발생에 따른 제한이 있음.
 - 프랑스산 쇠고기는 2025년 렘피스킨 발생으로 2025년 6월 선적분부터 수입금지 조치가 적용됨.
 - 아일랜드산 쇠고기는 2025년 358톤이 수입되었으나, 2026년 4월 비정형 BSE 발생으로 수입검역이 중단됨.

- 따라서 EU 4개 수입허용국 중 현재 안정적으로 수입이 가능한 국가는 네덜란드·덴마크이고, 프랑스와 아일랜드는 질병 발생에 따른 수입금지 또는 검역중단 조치가 해제되어야 실질적 수입이 재개될 수 있음.

3.2. 수입허용 절차가 진행 중인 EU 회원국

- EU 회원국 중 현재 쇠고기 수입허용 절차가 진행 중인 국가는 독일, 폴란드, 스페인, 벨기에, 스웨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이 있음. 이 중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인 독일, 폴란드, 스페인, 벨기에, 스웨덴은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허용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국가임.
- 독일, 폴란드, 스페인은 5단계인 수입허용 여부 결정 단계에 있음. 이는 현지조사 및 위험평가 단계 이후 수입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의미임. 다만 5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은 곧바로 수입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며, 이후 수입위생조건 협의, 고시, 수출작업장 승인,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가 추가로 필요함.
- 벨기에와 스웨덴은 4단계인 수입위험평가 보고서 작성 단계에 있음. 4단계는 수출국의 가축위생 실태, 질병 관리체계, 도축·가공장 관리, 검역증명 체계 등을 검토하는 단계임. 따라서 벨기에와 스웨덴은 독일·폴란드·스페인보다 절차상 한 단계 뒤져있는 상황임.
-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는 3단계에 있음. 3단계는 가축위생설문서 답변서를 검토하는 단계로, 현지조사와 위험평가가 본격적으로 완료되기 전 단계임. 포르투갈은 EU 쇠고기 수입허용 절차 진행국으로 언급되지만, 세부 단계 확인이 제한적임.

○ EU 회원국별 수입허용 진행 상황을 종합하면, 단기적으로는 독일, 폴란드, 스페인이 가장 앞선 국가군임. 이들 국가는 향후 수입위생조건 협의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음. 반면 벨기에와 스웨덴은 위험평가 단계에 있으며,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는 그보다 앞선 검토 단계에 있음.

3

EU의 쇠고기 산업

1. EU의 소 사육 및 쇠고기 생산 현황

1.1. 소 사육 현황

- 세계 소 사육 마릿수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가별로 보면 브라질·호주 등 일부 국가는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미국·EU27 등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어 국가별 사육 기반이 상이하게 나타남.
- 2024년 세계 소 사육 마릿수는 15억 7,861만 마리임. 국가별 소 사육 마릿수는 브라질이 2억 3,818만 마리(15.1%)로 가장 많았으며, 인도 1억 9,475만 마리(12.3%), 미국 8,716만 마리(5.5%) 순임. EU27의 사육 마릿수는 7,190만 마리로 세계 소 사육 마릿수 중 4.6%를 차지함.

〈표 3-1〉 주요 국가별 소 사육 마릿수

단위: 만 마리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비중
세계	152,688	154,078	155,541	157,414	157,861	100%
브라질	21,784	22,460	23,485	23,862	23,818	15.1%
인도	19,494	19,344	19,420	19,454	19,475	12.3%
미국	9,379	9,359	9,179	8,884	8,716	5.5%
EU27	7,655	7,571	7,481	7,376	7,190	4.6%
중국	6,693	6,872	7,151	7,356	7,033	4.5%
아르헨티나	5,446	5,352	5,342	5,424	5,278	3.3%
호주	2,350	2,443	2,440	2,988	3,037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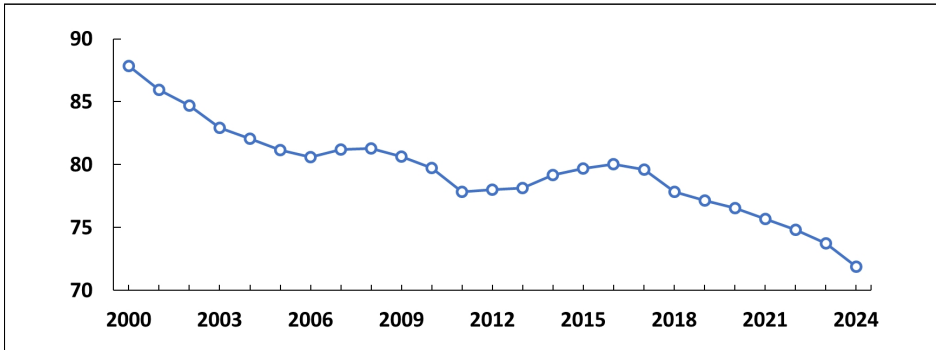
자료: FAO(<http://www.fao.org/faostat/en/#data>), 검색일: 2026. 3. 28.

○ EU27의 소 사육 마릿수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함. 2020년 7,655만 마리에서 2024년 7,190만 마리로 감소하여 5년간 465만 마리 감소하였으며, 감소율은 6.1% 수준임. 같은 기간 세계 소 사육 마릿수는 15억 2,688만 마리에서 15억 7,861만 마리로 증가하여 EU의 소 사육기반은 세계 전체 흐름과 달리 축소되는 특징을 보임.

○ EU의 소 사육기반 축소는 환경규제 강화, 사료비 상승, 낙농 및 육우 농가의 구조조정, 노동력 부족, 쇠고기 소비 정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됨. 특히 EU 소 산업은 고기소뿐 아니라 낙농 부문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젖소 사육두수 감소와 낙농농가 구조조정도 쇠고기 공급 기반 축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그림 3-1〉 EU27의 소 사육 마릿수 추이

단위: 백만 마리



자료: FAO(<http://www.fao.org/faostat/en/#data>), 검색일: 2026. 3. 28.

○ 2024년 EU27 회원국별 소 사육 마릿수는 프랑스가 1,648만 마리로 가장 많으며, EU 전체의 22.9%를 차지함. 다음으로 독일이 1,046만 마리로 14.6%를 차지함. 그 외 아일랜드,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가 주요 사육국가에 해당함. 우리나라에 쇠고기 수입허용을 요청한 국가 중에서는 독일, 폴란드, 스페인이 EU 내 주요 소 사육국에 포함되며, 벨기에와 스웨덴은 상대적으로 사육 규모가 작은 국가로 분류됨.

〈표 3-2〉 주요 EU27 회원국별 소 사육 마릿수

단위: 만 마리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비중
프랑스	1,782	1,733	1,699	1,681	1,648	22.9%
독일	1,130	1,104	1,100	1,084	1,046	14.6%
아일랜드	653	665	655	653	631	8.8%
폴란드	628	638	645	627	619	8.6%
스페인	664	658	646	629	617	8.6%
이탈리아	640	628	605	600	577	8.0%
네덜란드	369	371	375	374	356	5.0%
벨기에	234	231	229	225	215	3.0%
스웨덴	139	139	139	137	133	1.9%
EU 합계	7,655	7,571	7,481	7,376	7,190	100%

자료: FAO(<http://www.fao.org/faostat/en/#data>), 검색일: 2026. 3. 28.

- EU의 소 사육 구조는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음. 프랑스와 독일의 사육 마릿수를 합산하면 EU 전체의 37.5%를 차지함. 또한 프랑스·독일·아일랜드·폴란드·스페인·이탈리아 6개국으로 확장하면 이들 국가의 사육 마릿수 합산은 EU27 전체 사육 마릿수의 71%를 상회함. 따라서 EU27의 쇠고기 공급 여력을 평가할 때 EU 평균보다 주요 사육국의 사육두수 변화와 생산구조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수입허용 신청 5개국 중 독일은 EU 내 2위 사육국으로 사육 기반이 가장 큰 국가임. 폴란드와 스페인도 각각 EU 전체의 8.6%를 차지하는 주요 사육국인 반면 벨기에는 3.0%, 스웨덴은 1.9%에 그쳐 사육 규모가 작음. 이에 따라 향후 수입허용 시 독일·폴란드·스페인은 일정 규모의 공급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벨기에와 스웨덴은 특정 품질·품종·시장 세그먼트 중심의 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함.

1.2. 쇠고기 생산 현황

- 2024년 세계 쇠고기 생산량은 6,975만 톤임. 국가별로는 미국이 1,229만 톤으로 세계 전체의 17.6%를 차지하여 가장 큰 생산국이며, 브라질 1,024만 톤, 중국 701만 톤 순으로 나타남. EU27의 쇠고기 생산량은 666만 톤으로 세계 전체의 9.5%를 차지함.
- 사육 마릿수 기준 EU의 세계 비중은 4.6%이나, 쇠고기 생산량 기준 비중은 9.5%로 더 높게 나타남. 이는 EU의 생산성이 세계 평균보다 높고, 도체중 및 생산체계가 상대적으로 집약적이라는 점을 보여줌.¹⁾

¹⁾ 생산량 집계에서 인도가 누락되어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침.

○ EU27의 쇠고기 생산량은 2020년 690만 톤에서 2024년 666만 톤으로 감소함. 2023년에는 646만 톤까지 줄었으나 2024년에 666만 톤으로 반등함. 그러나 2020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므로, 최근의 생산 증가는 장기적인 생산기반 확대라기보다 도축 흐름 변화와 단기적인 생산 회복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함.

〈표 3-3〉 주요 국가별 쇠고기 생산량

단위: 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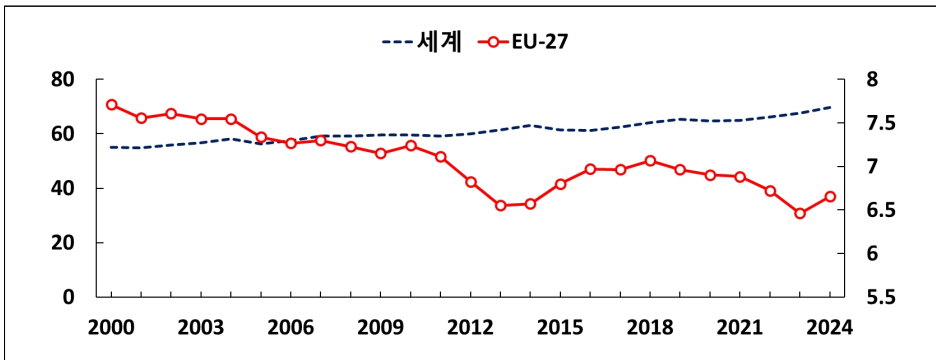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비중
미국	1,239	1,273	1,289	1,229	1,229	17.6%
브라질	782	746	801	896	1,024	14.7%
중국	605	628	646	677	701	10.1%
EU27	690	688	672	646	666	9.5%
아르헨티나	317	298	315	329	318	4.6%
호주	213	189	189	223	259	3.7%
세계	6,466	6,500	6,617	6,755	6,975	100%

자료: FAO(<http://www.fao.org/faostat/en/#data>), 검색일: 2026. 3. 28.

○ 세계 전체 쇠고기 생산량은 2020년 6,466만 톤에서 2024년 6,975만 톤으로 증가하였음. 반면 EU의 생산량은 같은 기간 감소하였으므로, EU 쇠고기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절대 생산량과 상대적 비중이 모두 약화되는 추세임. 이는 EU 쇠고기 산업이 생산 확대보다는 환경규제 대응, 동물복지, 품질 차별화, 역내 수급 안정에 더 큰 제약을 받는 구조임을 시사함.

〈그림 3-2〉 EU27의 쇠고기 생산 추이

단위: 백만 톤



자료: FAO(<http://www.fao.org/faostat/en/#data>), 검색일: 2026. 3. 28.

○ EU 회원국별 쇠고기 생산량을 보면 프랑스가 가장 큰 생산국이며,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 아일랜드가 주요 생산국에 해당함. 프랑스는 EU 전체의 19.5%를 차지하고, 독일은 15.3%, 스페인은 10.8%, 이탈리아는 9.9%, 폴란드는 9.63%, 아일랜드는 9.1%를 차지함. 이들 국가가 EU 쇠고기 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표 3-4〉 EU 회원국별 쇠고기 생산

단위: 천 톤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비중
프랑스	1,435	1,424	1,361	1,301	1,299	19.5%
독일	1,092	1,080	995	1,005	1,015	15.3%
스페인	678	718	732	698	718	10.8%
이탈리아	732	748	747	620	659	9.9%
폴란드	559	555	541	515	637	9.6%
아일랜드	633	595	621	600	603	9.1%
네덜란드	433	430	422	437	433	6.5%
벨기에	255	247	238	240	249	3.7%
스웨덴	143	137	137	140	141	2.1%
EU27	6,903	6,883	6,722	6,461	6,655	100.0%

자료: FAO(<http://www.fao.org/faostat/en/#data>), 검색일: 2026. 3. 28.

- 수입허용 신청 5개국 중 독일은 2024년 쇠고기 생산량이 101만 5천 톤으로, EU 내에서 프랑스 다음 수준의 주요 생산국임. 스페인은 71만 8천 톤, 폴란드는 63만 7천 톤으로 나타나며, 두 국가 모두 EU 내 상위권 쇠고기 생산국임. 벨기에는 24만 9천 톤, 스웨덴은 14만 1천 톤으로 생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음.
- 특히 폴란드는 2024년 생산량이 63만 7천 톤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폴란드가 EU 내에서 가격경쟁력과 수출 지향성을 바탕으로 쇠고기 공급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 스페인도 사육 마릿수와 생산량이 모두 큰 국가로, 남유럽 및 역내 시장을 중심으로 쇠고기 공급 기반을 유지하고 있음. 독일은 생산 규모가 크지만 내수 및 역내 교역 의존도가 높은 특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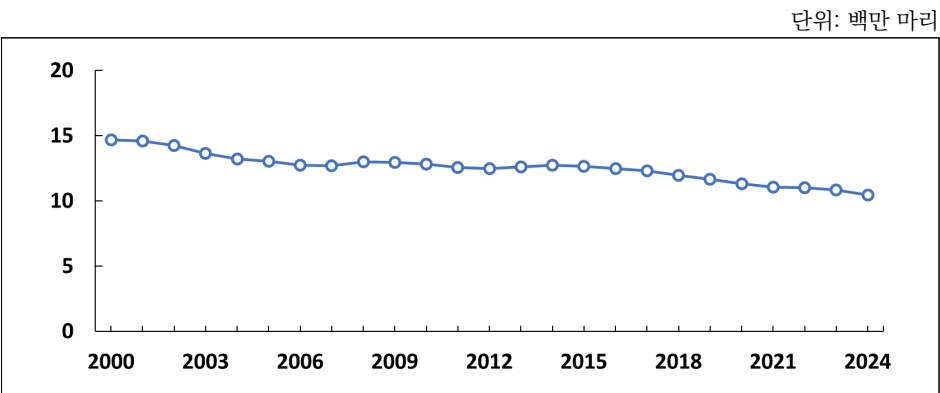
2. 수입허용 신청 5개국 쇠고기 산업 현황

2.1. 독일 소 사육 및 쇠고기 생산 현황

- 독일은 수입허용 신청 5개국 중 가장 큰 소 사육 기반을 보유한 국가임. 사육 마릿수 그래프를 보면 독일의 소 사육 마릿수는 장기간 하락세를 유지함. 최근 5년간 약 84만 마리 감소하여 독일의 소 사육 기반이 장기적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줌.
- 독일의 전체 소 사육 마릿수는 5개국 중 가장 크지만, 감소 추세가 비교적 뚜렷함. 이러한 감소는 낙농 및 육우 농가의 구조조정, 사료비 상승, 환경규제,

노동력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음. 독일은 EU 내 대표적인 낙농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소 사육 마릿수 감소는 단순히 육우 기반 축소만이 아니라 낙농부문 구조조정과도 연결됨.

〈그림 3-3〉 독일의 소 사육 마릿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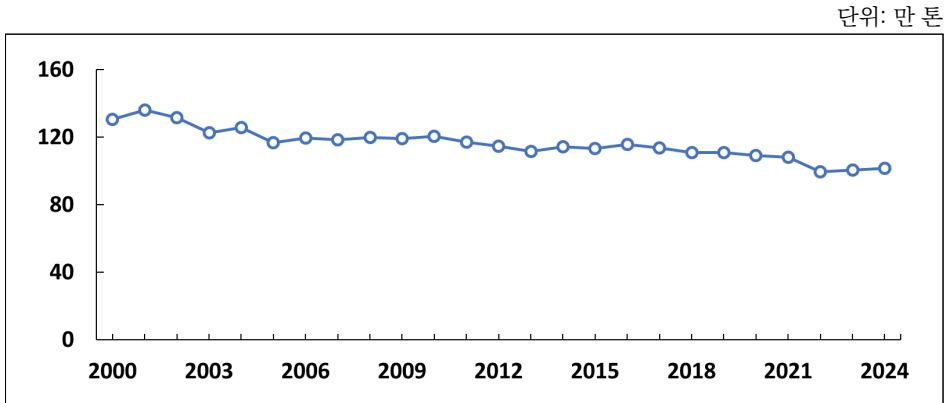
자료: FAO(<http://www.fao.org/faostat/en/#data>), 검색일: 2026. 3. 28.

○ 2024년 기준 독일의 전체 소는 약 1,046만 마리이며, 이 중 유용우는 약 359만 마리임. 유용우 비중은 34.3%로 EU 평균(26.7%)보다 높음.²⁾ 이는 독일 쇠고기 산업이 낙농업과 강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의미함. 독일의 쇠고기 공급은 전문 육우뿐만 아니라 낙농 부문에서 발생하는 수소 송아지, 도태 젖소, 낙농 기반 고기소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구조임.

○ 쇠고기 생산량 그래프를 보면 최근 2년간 쇠고기 생산량이 소폭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2019년 생산량(110만 7천 톤)에 이르지 못함. 따라서 최근의 생산량 증가는 장기적인 생산 기반 확대라기보다 감소 이후의 제한적 회복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함.

²⁾ Eurostat(<https://ec.europa.eu/eurostat/databrowser/>), 검색일: 2026. 2. 3.

〈그림 3-4〉 독일의 쇠고기 생산량



자료: FAO(<http://www.fao.org/faostat/en/#data>), 검색일: 2026. 3.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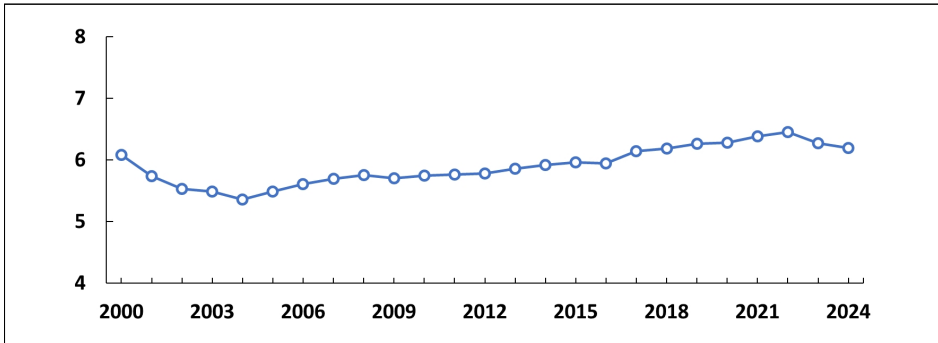
○ 우리나라 시장 관점에서, 독일은 생산 규모가 큰 국가이나 낙농 기반 비중과 EU 역내 시장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함. 수입허용이 이루어지더라도 독일산 쇠고기는 한우 고급 구이용 시장과 직접 경쟁하기보다는 냉동육, 가공용 원료육, 외식용 부위 등에서 기존 수입육과 제한적으로 경쟁할 가능성이 큼.

2.2. 폴란드 소 사육 및 쇠고기 생산 현황

○ 폴란드의 소 사육 마릿수는 최근 2년간 감소하였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육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으로 판단됨. 폴란드의 사육 마릿수는 2024년 기준 스페인과 거의 유사한 수준임. 그러나 생산 및 수출 측면에서는 폴란드의 잠재력이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음. 폴란드는 EU 내에서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있는 쇠고기 공급국으로 인식되며, 쇠고기 수출 실적도 일정 수준 축적되어 있음.

〈그림 3-5〉 폴란드의 소 사육 마릿수

단위: 백만 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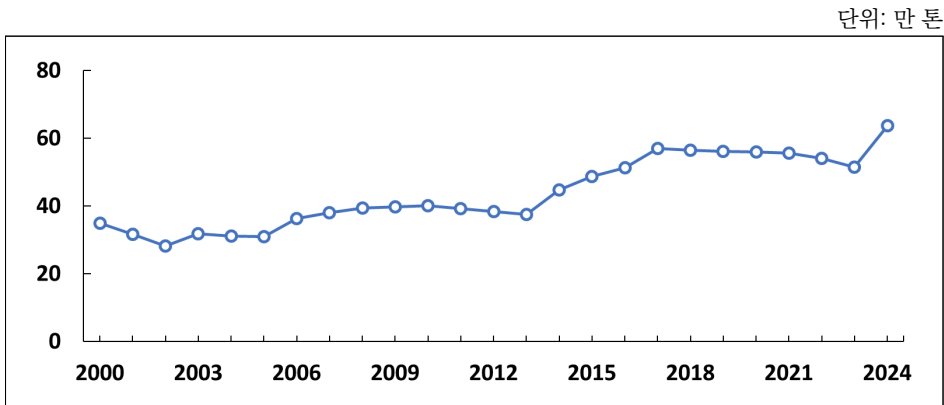


자료: FAO(<http://www.fao.org/faostat/en/#data>), 검색일: 2026. 3. 28.

- 2024년 폴란드의 전체 소는 약 619만 마리며, 유용우는 약 196만 마리임. 유용우 비중은 31.7%로 EU 평균보다 높음.³⁾ 따라서 폴란드 쇠고기 산업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낙농업과의 연계성이 비교적 강한 구조임. 다만 전체 소에서 유용우를 제외한 비유용우 등도 약 423만 마리 수준으로, 육용 기반도 일정하게 확보되어 있음.
- 쇠고기 생산량 그래프를 보면 폴란드의 생산량은 2019년 56만 1천 톤, 2020년 55만 9천 톤, 2021년 55만 5천 톤, 2022년 54만 1천 톤, 2023년 51만 5천 톤으로 완만히 감소하였으나, 2024년에는 63만 7천 톤으로 크게 증가함. 2024년의 생산량 증가는 5개국 중 가장 두드러짐.
- 이러한 흐름은 폴란드가 한국 시장 진입 시 물량과 가격 측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국가 중 하나임을 보여줌. 특히 폴란드산 쇠고기는 고급 냉장 구이용 보다는 냉동육, 외식용, 가공용 원료육, 중저가 수입육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음. 다만 한국 소비자의 원산지 인지도가 낮다는 점은 시장 확대에 불리한 요인임.

³⁾ Eurostat(<https://ec.europa.eu/eurostat/databrowser/>), 검색일: 2026. 2. 3.

〈그림 3-6〉 폴란드의 쇠고기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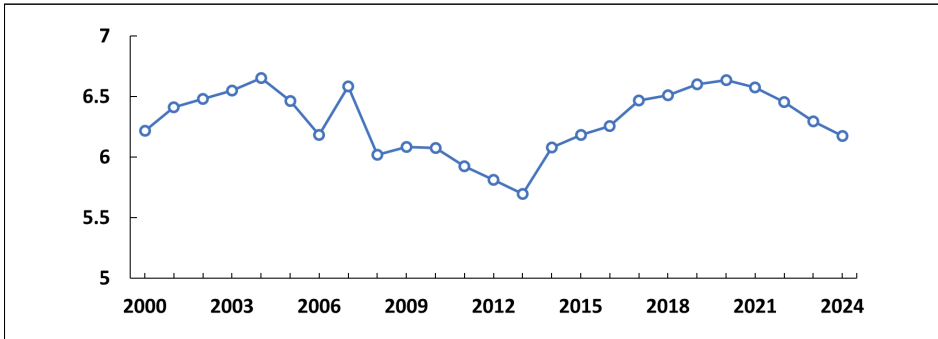
자료: FAO(<http://www.fao.org/faostat/en/#data>), 검색일: 2026. 3. 28.

2.3. 스페인 소 사육 및 쇠고기 생산 현황

- 스페인은 수입허용 신청 5개국 중 독일, 폴란드와 함께 주요 생산 기반을 가진 국가임. 사육 마릿수 그래프를 보면 스페인의 소 사육 마릿수는 2020년 664만 마리에서 2024년 617만 마리로 감소함. 2020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나며, 5년간 약 47만 마리 감소함.
- 스페인의 소 사육 마릿수는 2024년 기준 폴란드와 거의 비슷함. 그러나 스페인은 폴란드와 달리 유용우 비중이 낮고 고기소의 비중이 높다는 특징이 있음. 이는 스페인의 소 산업이 낙농보다는 육용 기반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점을 보여줌.

〈그림 3-7〉 스페인의 소 사육 마릿수

단위: 백만 마리



자료: FAO(<http://www.fao.org/faostat/en/#data>), 검색일: 2026. 3.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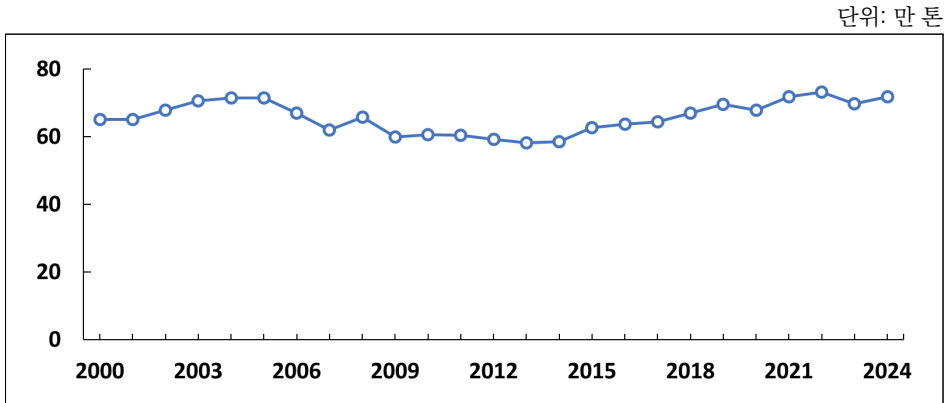
○ 2024년 기준 스페인의 전체 소는 약 617만 마리며, 유용우는 약 77만 마리임. 유용우 비중은 12.5%로 5개국 중 가장 낮음.⁴⁾ 전체 소에서 유용우를 제외한 고기소 사육 마릿수는 약 540만 마리로, 독일 다음으로 큰 규모임. 따라서 스페인은 수입허용 신청 5개국 중 육용 기반이 가장 뚜렷한 국가로 평가할 수 있음.

○ 쇠고기 생산량 그래프를 보면 스페인의 생산량은 2019년 69만 5천 톤, 2020년 67만 8천 톤, 2021년 71만 8천 톤, 2022년 73만 2천 톤, 2023년 69만 8천 톤, 2024년 71만 8천 톤으로 나타남. 독일처럼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폴란드처럼 2024년에 급증한 형태가 아니라, 70만 톤 내외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구조임.

○ 스페인은 생산량의 안정성과 낮은 유용우 비중을 고려할 때, 쇠고기 공급국으로서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한국 시장에서 스페인산 쇠고기의 원산지 인지도는 낮으며, 미국산·호주산과 직접 경쟁하기 위해서는 가격, 부위 구성, 냉장·냉동 형태, 품질 이미지 확보가 필요함.

⁴⁾ Eurostat(<https://ec.europa.eu/eurostat/databrowser/>), 검색일: 2026. 2. 3.

〈그림 3-8〉 스페인의 쇠고기 생산량



자료: FAO(<http://www.fao.org/faostat/en/#data>), 검색일: 2026. 3. 28.

2.4. 벨기에 소 사육 및 쇠고기 생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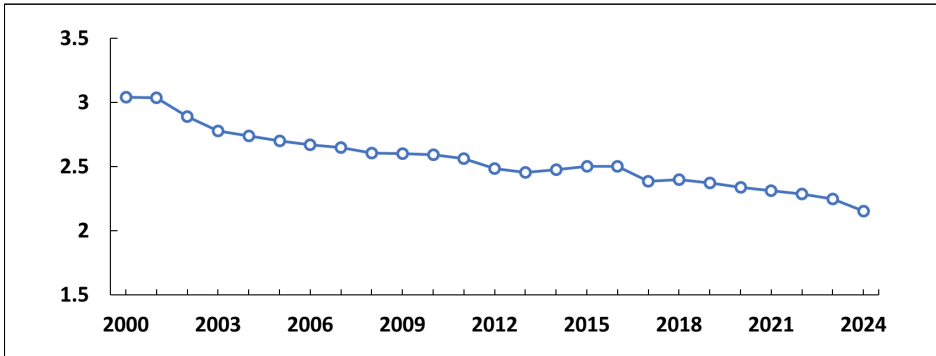
○ 벨기에는 독일, 폴란드, 스페인에 비해 사육 규모가 작은 국가임. 사육 마릿수 그래프를 보면 벨기에 소 사육 마릿수는 장기간 감소 추세에 있으며, 최근 5년간 약 19만 마리 감소(2020년 234만 마리에서 2024년 215만 마리)함. 감소 폭은 절대 규모로는 크지 않지만, 전체 사육 기반이 작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육 여력의 축소 흐름은 명확함.

○ 2024년 기준 벨기에의 전체 소는 약 215만 마리이며, 유용우는 약 52만 마리임. 유용우 비중은 24.1%로 EU 평균보다 약간 낮음.⁵⁾ 전체 소에서 유용우를 제외한 고기소는 약 164만 마리임. 벨기에는 낙농 기반과 육용 기반이 혼재된 구조이며, Belgian Blue와 같은 근육 발달형 품종 이미지가 강한 국가로 알려져 있음.

⁵⁾ Eurostat(<https://ec.europa.eu/eurostat/databrowser/>), 검색일: 2026. 2. 3.

〈그림 3-9〉 벨기에의 소 사육 마릿수

단위: 백만 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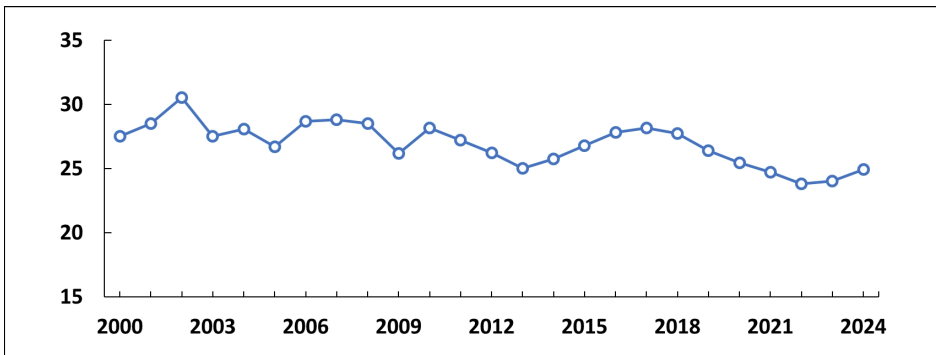
자료: FAO(<http://www.fao.org/faostat/en/#data>), 검색일: 2026. 3. 28.

○ 쇠고기 생산량 그래프를 보면 벨기에의 생산량은 2019년 26만 4천 톤에서 2022년 23만 8천 톤까지 감소한 뒤, 2023년 24만 톤, 2024년 24만 9천 톤으로 소폭 회복함.

○ 벨기에산 쇠고기의 한국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음. 생산 규모가 크지 않고, 수출 여력도 독일·폴란드·스페인에 비해 작기 때문임. 다만 품종 특성, 도체수율, 특정 부위 공급 가능성 측면에서는 차별적 진입 가능성은 있음.

〈그림 3-10〉 벨기에의 쇠고기 생산량

단위: 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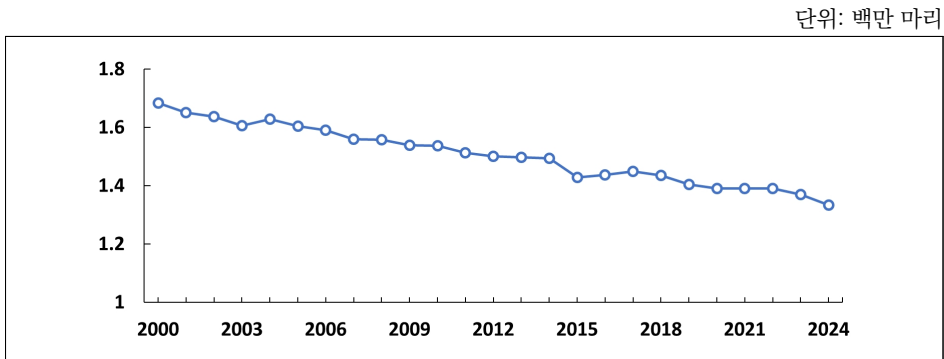


자료: FAO(<http://www.fao.org/faostat/en/#data>), 검색일: 2026. 3. 28.

2.5. 스웨덴 소 사육 및 쇠고기 생산 현황

- 스웨덴은 수입허용 신청 5개국 중 사육 마릿수와 쇠고기 생산량이 가장 작은 국가임. 사육 마릿수 그래프를 보면 스웨덴의 소 사육 마릿수는 2020년 139만 마리에서 2024년 133만 마리로 감소함. 전체 규모가 작고 변동 폭도 제한적이지만, 최근 흐름은 완만한 감소세로 정리할 수 있음.
- 2024년 기준 스웨덴의 전체 소는 약 133만 마리이며, 유용우는 약 29만 마리임. 유용우 비중은 21.7%로 EU 평균보다 낮음.⁶⁾ 전체 소에서 유용우를 제외한 비유용우 등은 약 104만 마리임. 다만 전체 사육 규모 자체가 작으므로 우리나라에 대량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적임.

〈그림 3-11〉 스웨덴의 소 사육 마릿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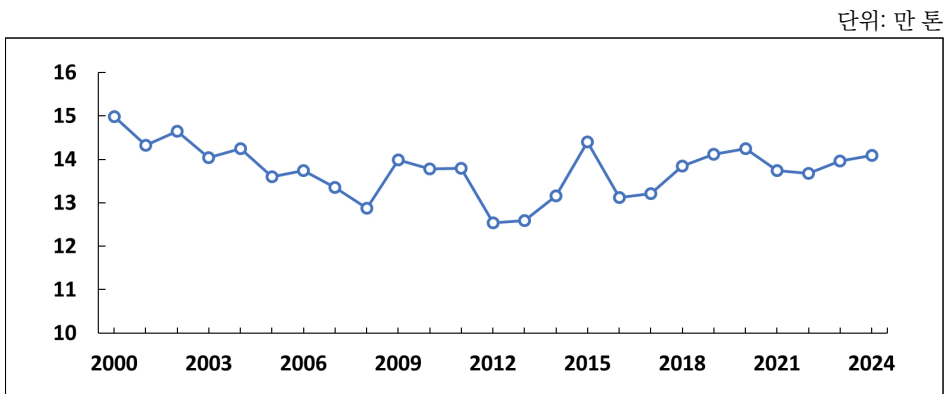
자료: FAO(<http://www.fao.org/faostat/en/#data>), 검색일: 2026. 3. 28.

- 쇠고기 생산량 그래프를 보면 스웨덴의 생산량은 2019년 14만 1천 톤, 2020년 14만 3천 톤, 2021년 13만 7천 톤, 2022년 13만 7천 톤, 2023년 14만 톤, 2024년 14만 1천 톤으로 나타남. 생산량은 14만 톤 내외에서 거의 정체되어 있으며, 증가 추세나 대규모 확대 흐름은 확인되지 않음.

⁶⁾ Eurostat(<https://ec.europa.eu/eurostat/databrowser/>), 검색일: 2026. 2. 3.

○ 스웨덴산 쇠고기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대량 공급원으로 보기 어렵고, 동물복지, 친환경, 안전성, 북유럽 원산지 이미지 등 비가격 요소를 중심으로 제한적 수요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실제 수입 규모는 물류비, 가격경쟁력, 수출 가능 물량, 한국 소비자의 원산지 인지도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큼.

〈그림 3-12〉 스웨덴의 쇠고기 생산량



자료: FAO(<http://www.fao.org/faostat/en/#data>), 검색일: 2026. 3. 28.

4

EU의 쇠고기 교역

1. EU의 쇠고기 교역 동향

○ EU27의 쇠고기 교역은 역내 교역과 역외 교역으로 구분되며, 대부분 역내 교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2024년 EU27의 역내 쇠고기 수출량은 204만 3천 톤으로 2020년 이후 연평균 2.4% 증가했으며, 역내 수입량 또한 196만 6천 톤으로 연평균 2.2%의 성장률을 기록함.
- 2024년 EU27 역외 쇠고기 수출량은 49만 톤으로 2020년 이후 연평균 2.2% 증가했으며, 역외 수입량은 27만 2천 톤으로 연평균 4.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표 4-1〉 EU27 쇠고기 교역 동향(HS 0201/0202)

단위: 천 톤, %

구분		2020	2021	2022	2023 (A)	2024 (B)	증감률	
							B/A	연평균
EU27 역내 교역	수출	1,861	1,954	2,008	1,997	2,043	2.3	2.4
	수입	1,805	1,872	1,936	1,898	1,966	3.6	2.2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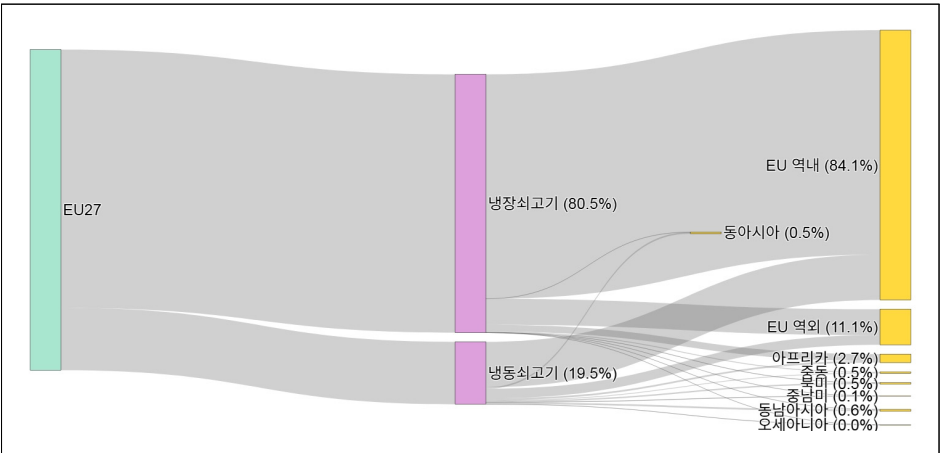
구분		2020	2021	2022	2023 (A)	2024 (B)	증감률	
							B/A	연평균
EU27 역외 교역	수출	449	444	398	406	490	20.9	2.2
	수입	229	215	250	244	272	11.7	4.5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plus.un.org/TradeFlow>), 검색일: 2026. 1. 28.

○ EU27의 대륙별 쇠고기 수출 구조를 살펴보면 냉장 쇠고기 중심의 역내 수출이 대부분이며, 역외 수출은 대부분 영국 등 유럽 비회원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 EU27의 동아시아 지역 쇠고기 수출은 홍콩,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5% 수준으로 미미함.

〈그림 4-1〉 EU27의 대륙별 쇠고기 수출 구조(HS 0201/0202)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plus.un.org/TradeFlow>), 검색일: 2026. 1. 28.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EU27의 역외 쇠고기 수출 실적을 냉장·냉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냉장 쇠고기 비율이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영국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 EU27의 역외 냉장 쇠고기 수출량은 2024년 34만 2천 톤으로 2020년 이후 연평균 7.0% 증가했으며, 총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20년 58.0%에서 2024년 69.8%로 증가함.
- EU27의 역외 냉동 쇠고기 수출량은 2024년 14만 8천 톤으로 2020년 이후 연평균 5.9% 감소했으며, 총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20년 42.0%에서 2024년 30.2%로 감소함.
- 2024년 기준 EU27의 역외 냉장 및 냉동 쇠고기 수출량은 영국이 각각 15만 1천 톤, 6만 7천 톤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EU27의 역외 냉장 쇠고기 수출에서는 對튀르키예 수출량이 2024년 7만 3천 톤으로 전년 대비 72.5% 증가했으며, 냉동 쇠고기 수출은 필리핀·홍콩·일본 등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감소 추세를 보임.

〈표 4-2〉 EU27의 역외 쇠고기 수출 동향(HS 0201/0202)

단위: 천 톤, %

구분	2020	2021	2022	2023 (A)	2024 (B)	증감률	
						B/A	연평균
냉장 쇠고기	261	239	223	257	342	33.2	7.0
영국	185	150	154	156	151	-3.5	-4.9
튀르키예	-	-	0.05	42	73	72.5	-
보스니아	16	16	17	19	33	79.0	20.3
스위스	17	19	17	13	15	21.1	-2.1
이스라엘	9	9	10	9	7	-24.8	-6.1
기타	35	44	25	19	64	-	-
냉동 쇠고기	189	205	174	149	148	-0.5	-5.9
영국	55	63	76	72	67	-7.4	5.1
필리핀	19	23	19	10	12	15.4	-11.2
캐나다	12	12	9	8	8	-1.0	-11.8
홍콩	20	17	3	6	5	-8.2	-28.4
일본	7	13	11	5	5	12.4	-7.1
기타	76	77	57	49	52	-	-
총합계	449	444	398	406	490	20.9	2.2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plus.un.org/TradeFlow>), 검색일: 2026. 1. 28.

○ EU27의 역외 쇠고기 수입은 아르헨티나·브라질·우루과이 등 남미 국가들이
냉장 및 냉동 쇠고기의 주요 공급국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EU27의 역외 냉장 쇠고기 수입량은 2024년 18만 3천 톤으로 2020년 이후
연평균 3.6% 증가했으나, 총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69.5%
에서 2024년 67.1%로 감소함.
- EU27의 역외 냉동 쇠고기 수입량은 2024년 8만 9천 톤으로 2020년 이후
연평균 6.4% 증가했으며, 총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20년 30.5%
에서 2024년 32.9%로 증가함.
- 2024년 EU27의 아르헨티나산 냉장 쇠고기 수입량은 4만 8천 톤으로 2020
년 이후 연평균 5.9% 증가했으며, 우루과이산(2만 2천 톤, 연평균 7.0%)과
브라질산(1만 8천 톤, 연평균 7.4%) 또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임.
- 냉동 쇠고기 수입량에서는 브라질이 최대 공급국으로, 2024년 브라질산 냉
동 쇠고기 수입량은 전체 냉동 쇠고기 수입량의 4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 EU27의 역외 쇠고기 수입 동향(HS 0201/0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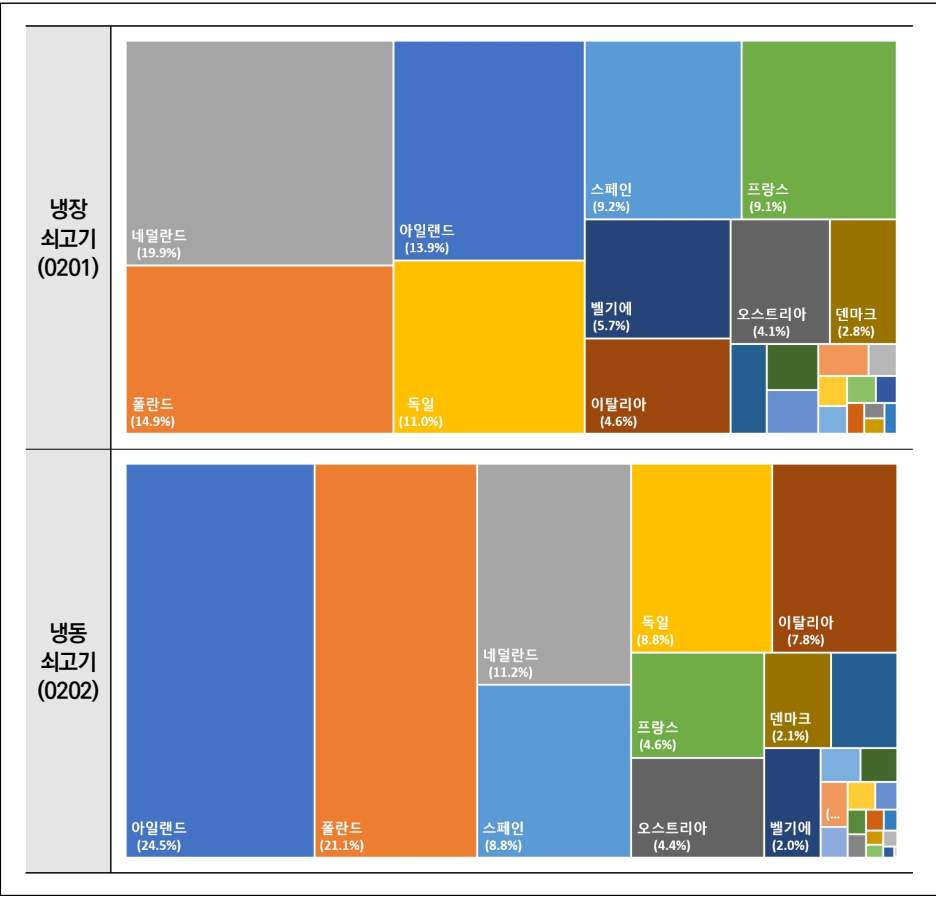
단위: 천 톤, %

구분	2020	2021	2022	2023 (A)	2024 (B)	증감률	
						B/A	연평균
냉장 쇠고기	159	142	174	169	183	8.3	3.6
영국	65	47	71	60	64	6.8	-0.2
아르헨티나	39	37	43	45	48	6.7	5.9
우루과이	17	20	20	22	22	-0.1	7.0
브라질	14	16	14	15	18	19.8	7.4
미국	12	10	14	14	12	-13.4	0.6
기타	14	13	13	13	18	-	-
냉동 쇠고기	70	73	76	75	89	19.4	6.4
브라질	36	37	39	38	38	-1.6	1.1
영국	15	14	15	16	16	5.8	1.9
우루과이	8	12	8	10	12	23.3	11.8
아르헨티나	4	3	4	3	6	82.9	12.7
뉴질랜드	3	2	2	2	3	34.9	-0.3
기타	4	5	8	6	14	-	-
총합계	229	215	250	244	272	11.7	4.5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plus.un.org/TradeFlow>), 검색일: 2026. 1. 28.

○ EU27의 주요 쇠고기 수출국을 살펴보면, 냉장 쇠고기 시장은 네덜란드(19.9%), 폴란드(14.9%), 아일랜드(13.9%) 순이며, 냉동 쇠고기 시장은 아일랜드(24.5%), 폴란드(21.1%), 네덜란드(11.2%) 순으로 나타남.

〈그림 4-2〉 EU27 주요 쇠고기 수출국가별 비율(EU27 역내외, 2020~2024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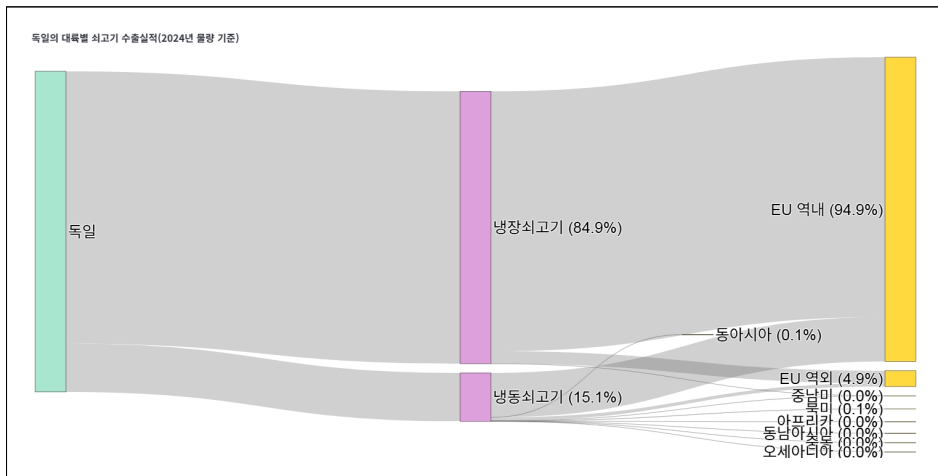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plus.un.org/TradeFlow>), 검색일: 2026. 1. 28.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EU27 주요 국가의 쇠고기 수출 동향

2.1. 수입허용 신청 5개국(독일, 폴란드, 스페인, 벨기에, 스웨덴)

- 2024년 독일의 쇠고기 수출은 냉장 쇠고기(84.9%)가 냉동 쇠고기(15.1%)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EU27 역내 시장 수출 비율이 94.9%로 냉장 쇠고기 중심의 역내 시장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를 보임.
- 역외 시장으로의 수출 비율은 역외 유럽이 4.9%로 나타났으며, 동아시아로의 수출 비율은 0.1%로 미미한 수준임.

〈그림 4-3〉 독일의 대륙별 쇠고기 수출 구조(HS 0201/0202)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plus.un.org/TradeFlow>), 검색일: 2026. 1. 28.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독일의 쇠고기 총수출량은 2024년 25만 4천 톤으로 2020년 이후 연평균 1.6%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독일의 냉장 쇠고기 수출량은 2024년 21만 2천 톤으로 2020년 이후 연평균 1.3% 증가했으며, 주요 수출 대상국은 네덜란드·이탈리아 등임.

- 독일의 냉동 쇠고기 수출량은 2024년 4만 2천 톤으로 2020년 이후 연평균 2.9% 증가함.

〈표 4-4〉 독일의 쇠고기 수출 동향(HS 0201/0202)

단위: 천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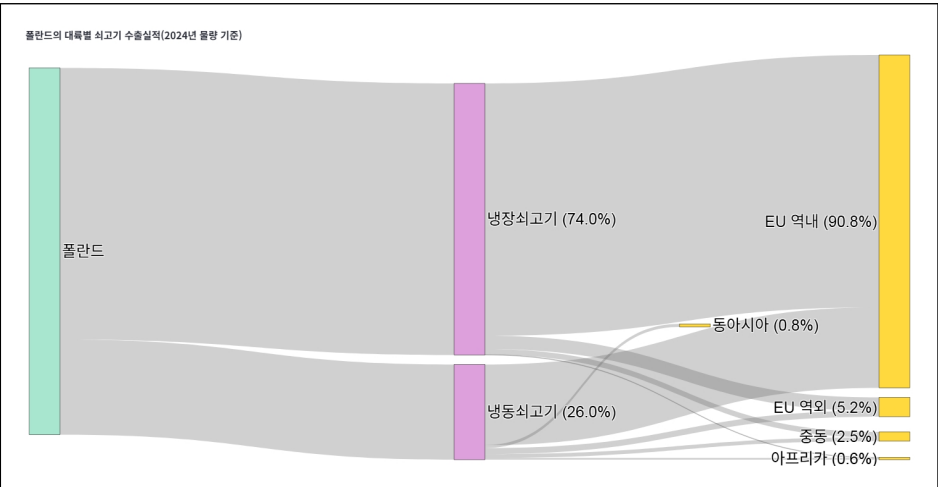
구분	2020	2021	2022	2023 (A)	2024 (B)	증감률	
						B/A	연평균
냉장 쇠고기	202	211	214	210	212	1.1	1.3
네덜란드	64	68	84	72	68	-5.5	1.8
이탈리아	23	23	23	32	38	19.4	13.2
덴마크	24	27	20	20	19	-5.3	-5.8
프랑스	19	19	20	20	18	-10.7	-1.9
오스트리아	17	15	14	13	14	8.2	-4.6
기타	54	59	52	53	55	-	-
냉동 쇠고기	37	43	48	48	42	-13.3	2.9
프랑스	8	9	11	10	7	-26.6	-0.3
오스트리아	4	4	9	10	7	-31.9	16.3
네덜란드	10	7	3	3	3	-16.8	-27.0
스페인	1	3	4	3	3	-17.8	19.9
스웨덴	1	4	4	4	2	-48.4	9.6
기타	13	16	17	18	20	-	-
총합계	239	254	261	258	254	-1.6	1.6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plus.un.org/TradeFlow>), 검색일: 2026. 1. 28.

○ 폴란드의 쇠고기 총수출량은 2024년 42만 7천 톤으로 2020년 이후 연평균 3.4% 증가했으며, 냉장 쇠고기는 증가세, 냉동 쇠고기는 감소세를 보임.

- 폴란드의 냉장 쇠고기 수출량은 2024년 32만 8천 톤으로 2020년 이후 연평균 4.9% 증가했으며, 주요 수출 대상국인 이탈리아·독일로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對튀르키예 수출량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함.
- 폴란드의 냉동 쇠고기 수출량은 2024년 9만 9천 톤으로 2020년 이후 연평균 1.0% 감소함.

〈그림 4-4〉 폴란드의 대륙별 쇠고기 수출 구조(HS 0201/0202)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plus.un.org/TradeFlow>), 검색일: 2026. 1. 28.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4-5〉 폴란드의 쇠고기 수출 동향(HS 0201/0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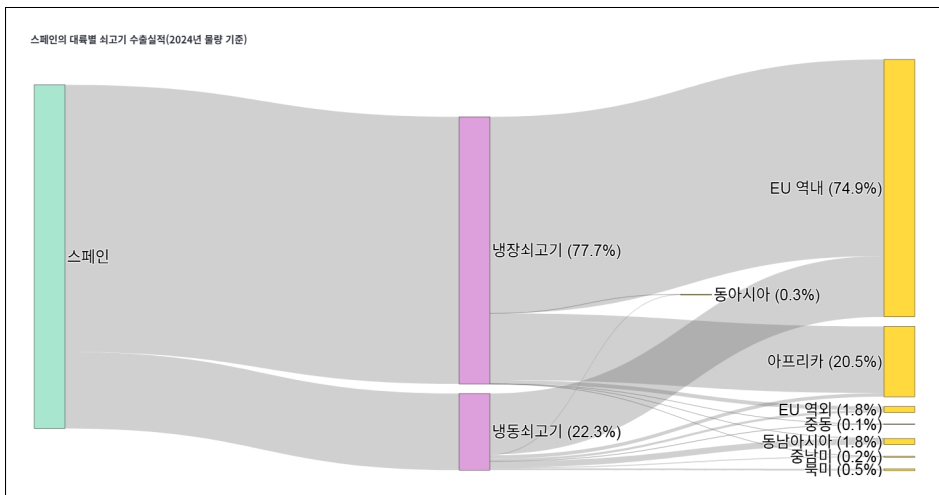
단위: 천 톤, %

구분	2020	2021	2022	2023 (A)	2024 (B)	증감률	
						B/A	연평균
냉장 쇠고기	271	266	256	301	328	9.0	4.9
이탈리아	74	70	64	78	76	-1.6	0.8
독일	53	57	57	51	57	10.3	1.9
튀르키예	-	-	-	33	47	44.7	-
네덜란드	32	27	27	29	29	0.0	-2.7
스페인	18	15	16	19	26	35.7	9.5
기타	94	96	93	92	93	-	-
냉동 쇠고기	103	106	108	105	99	-6.0	-1.0
프랑스	14	16	21	20	18	-10.6	6.4
독일	15	12	13	13	13	3.3	-2.8
네덜란드	8	6	6	7	6	-14.8	-7.1
스페인	8	8	10	14	6	-58.7	-8.6
스웨덴	7	7	7	6	6	3.3	-3.0
기타	51	57	50	46	50	-	-
총합계	374	372	364	407	427	5.1	3.4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plus.un.org/TradeFlow>), 검색일: 2026. 1. 28.

- 2024년 스페인의 쇠고기 수출은 냉장 쇠고기(77.7%)가 냉동 쇠고기(22.3%)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대륙별로는 EU27 역내 시장이 74.9%로 가장 높고, 역외 시장에서는 아프리카(20.5%)가 역외 유럽(1.8%)보다 높은 특징을 보임.

〈그림 4-5〉 스페인의 대륙별 쇠고기 수출 구조(HS 0201/0202)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plus.un.org/TradeFlow>), 검색일: 2026. 1. 28.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스페인의 쇠고기 총수출량은 2024년 22만 9천 톤으로 2020년 이후 연평균 3.4% 증가했으며, 냉장 쇠고기는 증가세, 냉동 쇠고기는 감소세를 보임.
 - 스페인의 냉장 쇠고기 수출량은 2024년 19만 톤으로 2020년 이후 연평균 4.7% 증가했으며, 주요 수출 대상국 중 對포르투갈 수출은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對프랑스 수출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스페인의 냉동 쇠고기 수출량은 2024년 3만 9천 톤으로 2020년 이후 연평균 1.6% 감소함.

〈표 4-6〉 스페인의 쇠고기 수출 동향(HS 0201/0202)

단위: 천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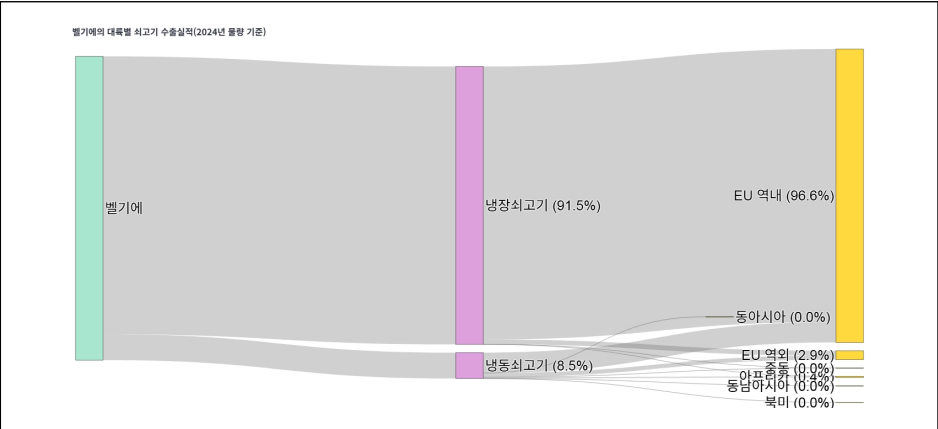
구분	2020	2021	2022	2023 (A)	2024 (B)	증감률	
						B/A	연평균
냉장 쇠고기	158	158	175	202	190	-6.1	4.7
포르투갈	62	56	61	72	58	-19.0	-1.4
이탈리아	36	38	45	46	38	-18.4	1.1
프랑스	12	14	18	24	23	-4.9	17.6
그리스	15	18	20	20	18	-9.2	4.7
네덜란드	16	18	18	18	13	-25.7	-4.5
기타	18	15	13	22	40	-	-
냉동 쇠고기	42	49	45	42	39	-7.4	-1.6
프랑스	6	7	11	11	10	-10.8	16.6
포르투갈	9	10	9	8	9	11.4	-0.9
네덜란드	5	5	3	3	2	-5.2	-15.3
독일	2	2	2	2	2	14.8	-3.0
캐나다	4	4	3	3	1	-42.4	-22.3
기타	13	15	15	13	12	-	-
총합계	200	207	221	244	229	-6.3	3.4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plus.un.org/TradeFlow>), 검색일: 2026. 1. 28.

○ 2024년 벨기에의 쇠고기 수출은 냉장 쇠고기(91.5%)가 냉동 쇠고기(8.5%)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EU27 역내 시장 수출 비율이 96.6%로 냉장 쇠고기 중심의 역내 시장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를 보임.

- 역외 시장으로의 수출 비율은 역외 유럽(2.9%)·아프리카(0.4%) 순으로 나타남.

〈그림 4-6〉 벨기에의 대륙별 쇠고기 수출 구조(HS 0201/0202)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plus.un.org/TradeFlow>), 검색일: 2026. 1. 28.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벨기에의 쇠고기 총수출량은 2024년 13만 톤으로 2020년 이후 연평균 3.2%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벨기에의 냉장 쇠고기 수출량은 2024년 11만 9천 톤으로 2020년 이후 연평균 3.2% 증가했으며, 주요 수출 대상국인 네덜란드로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함.
- 벨기에의 냉동 쇠고기 수출량은 2024년 1만 1천 톤으로 2020년 이후 연평균 4.0% 증가함.

〈표 4-7〉 벨기에의 쇠고기 수출 동향(HS 0201/0202)

구분	2020	2021	2022	2023 (A)	2024 (B)	증감률	
						B/A	연평균
냉장 쇠고기	105	113	104	105	119	13.5	3.2
네덜란드	28	34	31	35	43	23.6	11.5
프랑스	32	32	30	30	33	8.9	0.3
독일	21	22	20	17	19	14.4	-1.8
이탈리아	10	10	10	9	9	-1.8	-2.1
룩셈부르크	4	3	4	3	3	-4.8	-2.0
기타	11	10	10	11	12	-	-

단위: 천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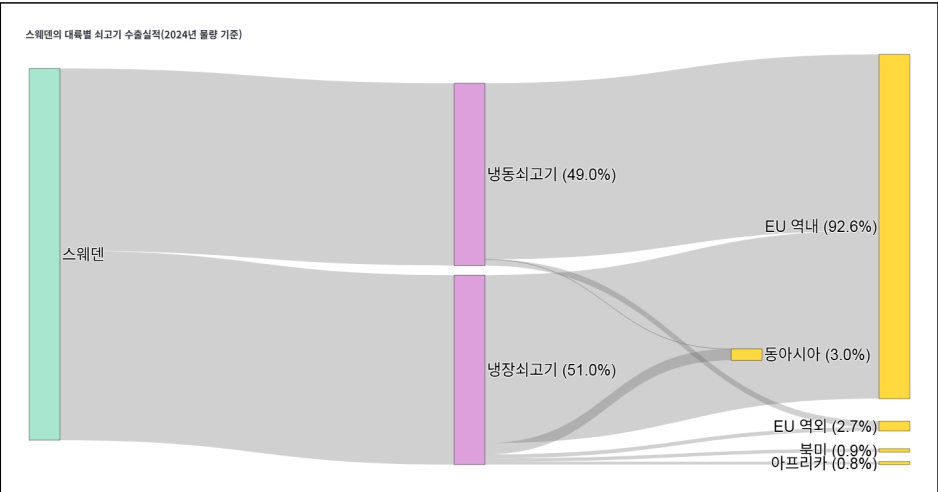
(계속)

구분	2020	2021	2022	2023 (A)	2024 (B)	증감률	
						B/A	연평균
냉동 쇠고기	9	9	10	10	11	7.2	4.0
독일	2	2	2	2	3	27.2	12.0
그리스	0	1	1	2	2	-14.7	47.8
영국	2	1	1	1	2	18.5	-4.9
네덜란드	2	2	2	1	1	83.7	-2.7
프랑스	1	1	1	1	1	-20.2	-18.1
기타	2	3	3	3	3	-	-
총합계	115	122	115	116	130	12.9	3.2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plus.un.org/TradeFlow>), 검색일: 2026. 1. 28.

○ 스웨덴의 쇠고기 수출은 EU27 전체 쇠고기 수출의 0.1% 수준으로 미미하며, 대부분 EU27 역내 시장으로 수출되고 냉장 쇠고기와 냉동 쇠고기의 수출 비율은 비슷한 수준임.

〈그림 4-7〉 스웨덴의 대륙별 쇠고기 수출 구조(HS 0201/0202)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plus.un.org/TradeFlow>), 검색일: 2026. 1. 28.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스웨덴의 쇠고기 총수출량은 2024년 1천 톤으로 202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스웨덴의 냉장 쇠고기 수출량은 2024년 664톤으로 2020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냉동 쇠고기의 경우 2020년 436톤에서 2024년 638톤으로 연평균 10.0% 증가함.

〈표 4-8〉 스웨덴의 쇠고기 수출 동향(HS 0201/0202)

단위: 천 톤, %

구분	2020	2021	2022	2023 (A)	2024 (B)	증감률	
						B/A	연평균
냉장 쇠고기	8.2	6.3	0.7	0.6	0.7	6.9	-46.7
핀란드	0.2	0.4	0.3	0.2	0.3	42.6	15.3
덴마크	0.2	0.3	0.3	0.3	0.2	-28.8	4.6
노르웨이	0.2	0.0	0.0	0.0	0.0	8527.7	-46.3
코트디부아르	-	-	0.0	0.0	0.0	-66.7	-
독일	7.6	5.5	0.0	0.0	0.0	-10.9	-83.7
기타	0.1	0.1	0.0	0.0	0.1	-	-
냉동 쇠고기	0.4	0.7	0.6	0.7	0.6	-12.4	10.0
덴마크	0.1	0.1	0.0	0.1	0.2	15.7	11.7
독일	0.0	0.2	0.2	0.2	0.1	-21.8	34.4
핀란드	0.1	0.1	0.1	0.1	0.1	-25.1	-8.1
스페인	0.1	0.1	0.1	0.1	0.1	17.2	-8.3
세르비아	-	0.0	0.1	-	0.0	-	-
기타	0.1	0.2	0.1	0.2	0.1	-	-
총합계	8.6	6.9	1.3	1.3	1.3	-3.5	-3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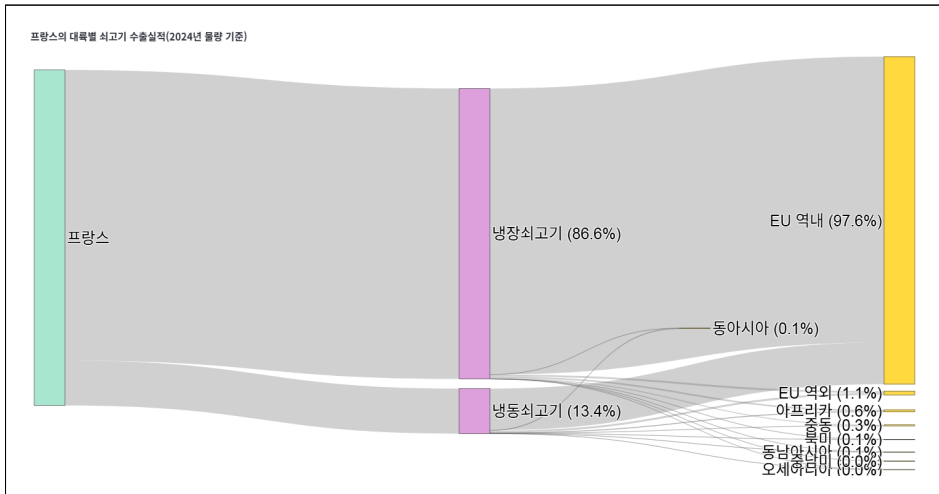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plus.un.org/TradeFlow>), 검색일: 2026. 1. 28.

2.2. 기수입허용 4개국(아일랜드,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 2024년 프랑스의 쇠고기 수출은 냉장 쇠고기(86.6%)가 냉동 쇠고기(13.4%)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EU27 역내 시장 수출 비율이 97.6%로 냉장 쇠고기 중심의 역내 시장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를 보임.

- 역외 시장으로의 수출 비율은 역외 유럽(1.1%)·아프리카(0.6%)·중동(0.3%)·동아시아(0.1%) 순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임.

〈그림 4-8〉 프랑스의 대륙별 쇠고기 수출 구조(HS 0201/0202)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plus.un.org/TradeFlow>), 검색일: 2026. 1. 28.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프랑스의 쇠고기 총수출량은 2024년 20만 4천 톤으로 2020년 이후 연평균 1.7% 증가했으며, 냉동 쇠고기 수출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프랑스의 냉장 쇠고기 수출량은 2024년 17만 6천 톤으로 2020년 이후 연평균 0.2% 증가하였으나, 주요 수출 대상국인 이탈리아·그리스·독일로의 수출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프랑스의 냉동 쇠고기 수출량은 2024년 2만 8천 톤으로 2020년 이후 연평균 15.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표 4-9〉 프랑스의 쇠고기 수출 동향(HS 0201/0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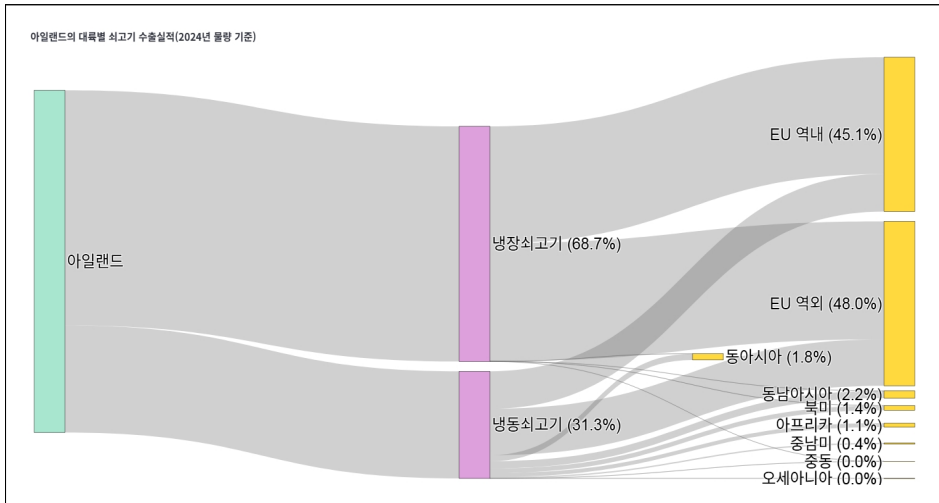
단위: 천 톤, %

구분	2020	2021	2022	2023 (A)	2024 (B)	증감률	
						B/A	연평균
냉장 쇠고기	174	183	180	162	176	8.5	0.2
이탈리아	62	57	54	50	52	3.9	-4.3
그리스	39	37	33	32	36	10.6	-2.1
독일	40	39	36	33	35	6.5	-2.7
네덜란드	7	16	31	21	22	7.6	33.2
벨기에	14	19	15	13	13	6.2	-1.4
기타	13	14	13	13	17	-	-
냉동 쇠고기	16	24	24	22	28	24.7	15.2
네덜란드	1	7	9	9	10	5.2	88.9
벨기에	4	5	5	5	7	28.7	12.2
스페인	0	1	1	1	2	121.6	46.3
독일	2	2	1	2	1	-1.9	-6.2
이탈리아	1	1	1	1	1	-33.1	-4.8
기타	8	9	7	5	7	-	-
총합계	190	207	204	184	204	10.5	1.7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plus.un.org/TradeFlow>), 검색일: 2026. 1. 28.

- 2024년 아일랜드의 쇠고기 수출은 냉장 쇠고기(68.7%)가 냉동 쇠고기(31.3%)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EU27 역내 시장과 영국 등 역외 시장으로의 수출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구성됨.
- 대륙별로는 EU27 역외 시장(영국 포함)으로의 수출 비율이 48.0%로 가장 높고, EU27 역내 시장이 45.1%로 유사한 수준이며, 이외 동남아시아(2.2%)·동아시아(1.8%)·북미(1.4%) 순으로 나타남.

〈그림 4-9〉 아일랜드의 대륙별 쇠고기 수출 구조(HS 0201/0202)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plus.un.org/TradeFlow>), 검색일: 2026. 1. 28.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아일랜드의 쇠고기 총수출량은 2024년 39만 5천 톤으로 2020년 이후 연평균 0.4% 증가했으며, 냉동 쇠고기 수출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아일랜드의 냉장 쇠고기 수출량은 2024년 27만 2천 톤으로 2020년 이후 연평균 1.0% 감소했으며, 주요 수출 대상국인 영국으로의 수출량 또한 13만 3천 톤으로 연평균 3.9% 감소함.
- 아일랜드의 냉동 쇠고기 수출량은 2024년 12만 3천 톤으로 2020년 이후 연평균 3.8% 증가했으며, 필리핀·홍콩 등 아시아 시장으로의 수출은 감소한 반면, EU27 역내 수출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표 4-10〉 아일랜드의 쇠고기 수출 동향(HS 0201/0202)

단위: 천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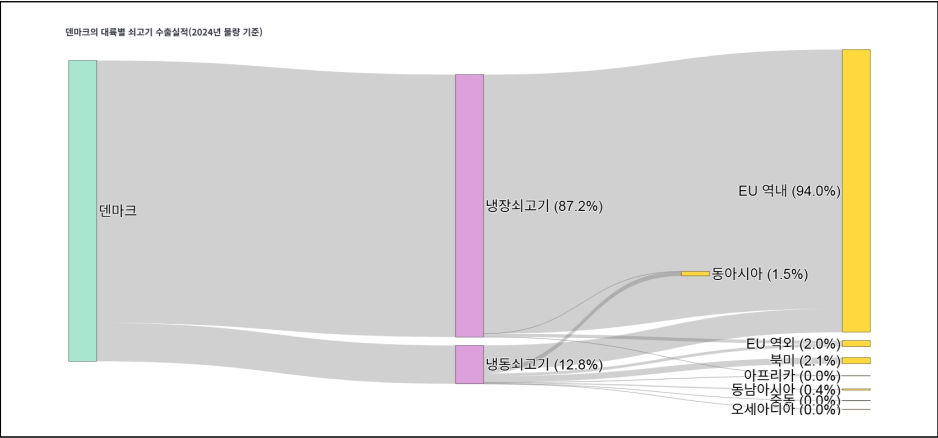
구분	2020	2021	2022	2023 (A)	2024 (B)	증감률	
						B/A	연평균
냉장 쇠고기	282	246	267	261	272	3.9	-1.0
영국	156	123	132	133	133	-0.6	-3.9
프랑스	25	24	30	29	30	6.4	5.4
이탈리아	23	22	27	26	25	-4.2	2.2
네덜란드	29	28	26	23	24	5.1	-4.2
독일	15	15	15	15	16	6.5	1.5
기타	35	35	38	35	43	-	-
냉동 쇠고기	106	127	131	119	123	3.0	3.8
영국	39	45	51	52	52	1.0	7.4
프랑스	6	15	20	18	17	-3.2	30.1
필리핀	17	16	13	7	8	11.8	-16.3
스웨덴	2	9	10	7	7	-7.9	37.2
홍콩	8	8	2	4	4	4.2	-15.2
기타	34	34	34	32	35	-	-
총합계	388	373	398	381	395	3.6	0.4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plus.un.org/TradeFlow>), 검색일: 2026. 1. 28.

○ 2024년 덴마크의 쇠고기 수출은 냉장 쇠고기(87.2%)가 냉동 쇠고기(12.8%)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EU27 역내 시장 수출 비율이 94.0%로 냉장 쇠고기 중심의 역내 시장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를 보임.

- 역외 시장으로의 수출 비율은 역외 유럽(2.0%)·북미(2.1%)·동아시아(1.5%)순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임.

〈그림 4-10〉 덴마크의 대륙별 쇠고기 수출 구조(HS 0201/0202)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plus.un.org/TradeFlow>), 검색일: 2026. 1. 28.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덴마크의 쇠고기 총수출량은 2024년 5만 7천 톤으로 2020년 이후 연평균 2.5%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덴마크의 냉장 쇠고기 수출량은 2024년 4만 9천 톤으로 2020년 이후 연평균 2.1% 감소했으며, 주요 수출 대상국인 독일로의 수출량 또한 1만 3천 톤으로 연평균 9.7% 감소함.
- 덴마크의 냉동 쇠고기 수출량은 2024년 8천 톤으로 2020년 이후 연평균 5.2% 감소함.

〈표 4-11〉 덴마크의 쇠고기 수출 동향(HS 0201/0202)

단위: 천 톤, %							
구분	2020	2021	2022	2023 (A)	2024 (B)	증감률	
						B/A	연평균
냉장 쇠고기	54	56	54	50	49	-1.9	-2.1
독일	20	18	17	15	13	-11.6	-9.7
이탈리아	7	8	9	8	9	1.9	4.6
스웨덴	7	8	8	6	7	13.1	2.1
스페인	4	4	4	4	4	-6.9	-2.0
네덜란드	3	3	4	6	2	-62.4	-3.2
기타	13	15	13	10	14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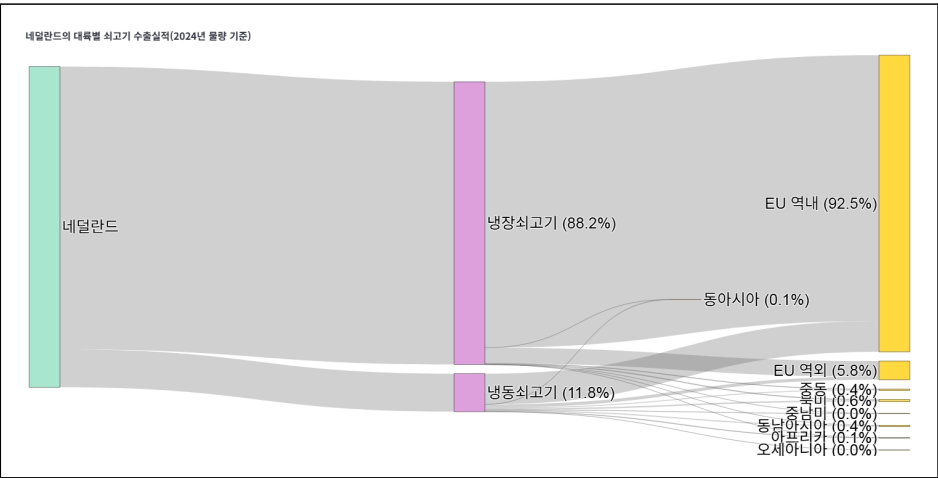
(계속)

구분	2020	2021	2022	2023 (A)	2024 (B)	증감률	
						B/A	연평균
냉동 쇠고기	10	14	11	9	8	-9.9	-5.2
스웨덴	1	1	1	1	1	7.5	7.4
캐나다	1	2	2	2	1	-26.2	-4.5
그린란드	1	1	1	1	1	-6.1	-1.6
그리스	1	0	1	1	1	-20.6	-3.9
베트남	0.5	1.4	0.6	0.3	0.2	-18.3	-17.0
기타	6	8	6	4	3	-	-
총합계	64	70	66	59	57	-3.1	-2.5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plus.un.org/TradeFlow>), 검색일: 2026. 1. 28.

- 2024년 네덜란드의 쇠고기 수출은 냉장 쇠고기(88.2%)가 냉동 쇠고기(11.8%)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EU27 역내 시장 수출 비율이 92.5%로 냉장 쇠고기 중심의 역내 시장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를 보임.
- 역외 시장으로의 수출 비율은 역외 유럽이 5.8%로 나타났으며, 북미(0.6%)·중동(0.4%)·동남아시아(0.4%) 순임.

〈그림 4-11〉 네덜란드의 대륙별 쇠고기 수출 구조(HS 0201/0202)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plus.un.org/TradeFlow>), 검색일: 2026. 1. 28.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네덜란드의 쇠고기 총수출량은 2024년 45만 6천 톤으로 2020년 이후 연평균 2.0%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네덜란드의 냉장 쇠고기 수출량은 2024년 40만 2천 톤으로 2020년 이후 연평균 1.8% 증가했으며, 주요 수출 대상국은 독일·프랑스·이탈리아 순임.
- 네덜란드의 냉동 쇠고기 수출량은 2024년 5만 4천 톤으로 2020년 이후 연평균 3.4% 증가함.

〈표 4-12〉 네덜란드의 쇠고기 수출 동향(HS 0201/0202)

단위: 천 톤, %

구분	2020	2021	2022	2023 (A)	2024 (B)	증감률	
						B/A	연평균
냉장 쇠고기	374	381	377	371	402	8.3	1.8
독일	116	109	107	103	113	9.8	-0.6
프랑스	55	64	74	69	68	-0.3	5.7
이탈리아	55	53	46	43	44	3.4	-5.2
스페인	17	20	19	21	25	16.3	10.4
덴마크	22	22	17	17	17	2.8	-5.4
기타	110	113	113	118	133	-	-
냉동 쇠고기	48	65	62	49	54	12.0	3.4
독일	10	11	10	10	11	10.7	4.1
영국	3	6	11	8	4	-56.7	9.0
프랑스	5	6	5	4	3	-24.5	-8.2
벨기에	3	4	3	3	3	10.5	-0.7
가나	7	6	1	0	0	-31.2	-61.9
기타	21	31	32	23	33	-	-
총합계	422	446	438	420	456	8.7	2.0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plus.un.org/TradeFlow>), 검색일: 2026. 1. 28.

○ 2024년 폴란드의 쇠고기 수출은 냉장 쇠고기(74.0%)가 냉동 쇠고기(26.0%)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EU27 역내 시장 수출 비율이 90.8%로 냉장 쇠고기 중심의 역내 시장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를 보임.

- 역외 시장으로의 수출 비율은 역외 유럽이 5.2%로 나타났으며, 중동(2.5%)·동아시아(0.8%)·아프리카(0.6%) 순임.

2.3. 주요 수출국가별 쇠고기 수출단가 비교

- 주요 쇠고기 수출국의 2024년 수출단가를 비교해 보면, 냉장 쇠고기의 경우 미국산이 11.1달러/kg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호주산(10.4달러/kg)·뉴질랜드산(10.3달러/kg)·캐나다산(7.5달러/kg) 순으로 나타남.
 - 미국산 냉장 쇠고기 수출단가는 2022년 대비 11.1% 상승한 반면, 호주산, 뉴질랜드산, 캐나다산은 각각 14.4%, 2.1%, 1.2% 하락함.
- EU27의 쇠고기 수출국에서는 아일랜드가 8.3달러/kg, 네덜란드가 7.8달러/kg, 폴란드가 6.6달러/kg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캐나다산 냉장 쇠고기 수출단가(7.5달러/kg)와 비슷한 수준임.
 - 아일랜드산과 네덜란드산 냉장 쇠고기 수출단가는 2022년 대비 각각 13.2%, 13.6% 상승한 반면, 폴란드산은 14.0% 하락함.
- 냉동 쇠고기의 경우 미국산이 8.1달러/kg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캐나다산(6.3달러/kg)·호주산(5.3달러/kg)·뉴질랜드산(5.1달러/kg) 순으로 나타남.
 - 미국산과 캐나다산 냉동 쇠고기 수출단가는 2022년 대비 각각 1.7%, 3.8% 상승한 반면, 호주산과 뉴질랜드산은 각각 15.7%씩 하락함.
- EU27의 쇠고기 수출국에서는 네덜란드가 6.5달러/kg, 폴란드가 5.9달러/kg, 아일랜드가 5.6달러/kg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캐나다산 냉동 쇠고기 수출단가(6.3달러/kg)와 비슷한 수준임.
 - 네덜란드산과 아일랜드산 냉동 쇠고기 수출단가는 2022년 대비 각각 25.7%, 8.4% 상승한 반면, 폴란드산은 3.6% 하락함.

〈표 4-13〉 쇠고기 수출국별 단가(호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EU 9개국 역외)

단위: 천 톤, 달러/kg

구분		냉장 쇠고기				냉동 쇠고기			
		수출량	수출단가			수출량	수출단가		
			2024	2020	2022		2024	2024	2020
호주		325	8.8	12.2	10.4	1,066	4.9	6.3	5.3
미국		366	8.1	10.0	11.1	527	5.8	8.0	8.1
캐나다		699	6.1	7.6	7.5	133	5.0	6.1	6.3
뉴질랜드		35	8.4	10.5	10.3	425	4.8	6.0	5.1
EU 9개국 역외	아일랜드	138	5.7	7.3	8.3	80	3.8	5.1	5.6
	폴란드	67	5.4	7.7	6.6	16	4.2	6.1	5.9
	네덜란드	31	5.5	6.9	7.8	12	4.1	5.2	6.5
	스페인	29	5.0	9.7	6.3	10	4.2	5.4	5.8
	독일	10	4.0	5.7	5.4	7	5.7	9.6	9.3
	프랑스	9	7.9	9.0	8.2	3	4.1	5.3	5.1
	벨기에	2	3.9	4.5	4.9	2	3.4	3.6	4.5
	덴마크	1	5.6	6.6	10.0	4	4.5	6.3	6.9
	스웨덴	0.08	1.7	4.6	6.0	0.02	4.0	2.4	2.2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plus.un.org/TradeFlow>), 검색일: 2026. 1. 28.

3. EU의 해상운송 환경⁷⁾

○ EU산 쇠고기의 한국 시장 진입 가능성을 평가할 때 생산량, 수출단가, 수입허용 절차뿐만 아니라 해상운송 환경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쇠고기는 냉장 또는 냉동 상태로 장거리 운송되어야 하므로, 정기선 항로, 냉동컨테이너 확보 가능성, 항해기간, 운임, 부대비용, 환적 여부가 수입 가능성과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미침.

⁷⁾ 위탁 원고의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관세법인 에스유 관세사 설립준).

3.1. 정기선 및 냉동컨테이너 운송 구조

- 컨테이너 운송은 표준화된 20피트 또는 40피트 컨테이너를 활용하는 방식임. 냉동 쇠고기는 온도 유지가 필요한 품목이므로 일반 컨테이너가 아니라 냉동컨테이너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 건화물 컨테이너보다 운임과 관리 비용이 높고, 냉동컨테이너 장비 수급 상황도 운송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
- EU에서 한국으로 운송되는 쇠고기는 유럽 주요 항만에서 부산항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일반적임. 북유럽에서는 독일 함부르크항, 벨기에 앤트워프항, 폴란드 그단스크항 등이 주요 출발항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스페인은 바르셀로나항, 스웨덴은 고텐버그항이 이용될 수 있음.

3.2. 허브포트와 해운 얼라이언스의 영향

-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은 허브포트와 피더 운송을 결합하여 운영됨. 허브포트는 대형 컨테이너선이 기항하는 중심 항만이며, 인근 중소 항만의 화물은 피더선을 통해 허브항으로 모인 뒤 장거리 기간항로에 연결됨. 유럽의 대표적 허브항으로는 독일 함부르크, 서지중해의 제노바, 동지중해의 이스탄불 등이 있으며, 동아시아에서는 부산항과 상하이항이 주요 허브항으로 기능함.
- EU산 쇠고기 수입의 관점에서 해운 얼라이언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짐.
 - 첫째, 주요 유럽 항만과 부산항을 연결하는 정기선 서비스가 일정 수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
 - 둘째, 선복 상황과 얼라이언스별 노선 조정에 따라 운임과 항해기간이 변

동될 수 있음. 따라서 EU산 쇠고기의 물류 여건은 단순히 항만 간 거리만이 아니라 선사 배선, 환적 여부, 냉동컨테이너 확보 가능성에 의해 결정됨.

3.3. 해상운임 결정 구조와 SCFI

- 해상운임은 단순한 거리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음. 정기선 운임은 선사의 기본 운임정책, 항로별 선복 수급, 화주의 물동량, 계약기간, 유가, 환율, 항만 혼잡, 성수기 여부, 각종 부대비용에 의해 결정됨. 대형 화주와 국제복합운송인은 선사와 개별 협상을 통해 운임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 중소 화주는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해 높은 운임이 적용될 수 있음.
- 운임에는 기본 해상운임 외에도 BAF, CAF, EBS, LSS, PSS, 항만혼잡료, 전쟁위험할증료 등 다양한 부대비용이 포함될 수 있음. 유럽발 냉동컨테이너 운송의 경우에도 기본 해상운임 외에 유럽 환경부담금, 터미널 조작료, 컨테이너 세척료, 서류비, 수출 핸들링 비용, 국내 터미널 비용 등이 함께 발생함.

3.4. EU 주요국에서 부산까지의 냉동컨테이너 운임

- 2026년 3월 기준 수입허용 신청 5개국에서 부산항까지 냉동컨테이너 40' RF를 이용할 경우, 국가별 운임과 항해기간에는 차이가 있음.
 -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독일은 부산까지 직항 서비스가 가능함.
 - 폴란드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환적해야 함.
 - 항해기간은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독일이 대체로 55~60일 수준이며, 폴란드는 환적을 거치기 때문에 65~70일 수준으로 더 김.

〈표 4-14〉 EU 주요국에서 부산까지의 냉동컨테이너 운임

구분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독일	폴란드
출발항	앤티워프	고텐버그	바르셀로나	함부르크	그단스크
선사	HMM	MSC	MSC	HMM	MSC
운항형태	직항	직항	직항	직항	환적
항해기간	55~60일	55~60일	55~60일	55~60일	65~70일
총 운임 및 부대비용	3,913,582	4,274,402	6,814,632	3,913,582	4,172,802
kg당 비용	약 196	약 214	약 341	약 196	약 209

자료: 저자 작성.

○ 국가별 총 운임 및 부대비용은 벨기에와 독일이 약 391만 원으로 가장 낮고, 폴란드 약 417만 원, 스웨덴 약 427만 원, 스페인 약 681만 원 순으로 나타남. 20톤 적재를 가정할 경우 kg당 운송비는 벨기에와 독일이 약 196원, 폴란드 약 209원, 스웨덴 약 214원, 스페인 약 341원 수준임. 즉 대부분의 EU 국가에서 부산까지의 냉동컨테이너 운송비는 kg당 200원 내외이며, 스페인처럼 해상운임이 높은 경우에는 300원대 중반까지 상승할 수 있음.

○ 이러한 수준의 운송비는 쇠고기 수입단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음. 따라서 EU산 쇠고기의 한국 시장 진입 가능성은 운송비 자체보다는 원육 가격, 부위 구성, 관세, 검역 조건, 냉장·냉동 여부, 수입업체의 취급 의향, 소비자 인지도에 더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큼. 다만 스페인처럼 운임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나 폴란드처럼 환적이 필요한 국가는 항해기간과 물류 안정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3.5. 미국·호주와의 운송 여건 비교

○ 2026년 3월 기준 미국 LA에서 부산까지의 냉동컨테이너 40' RF 운임은 3,600달러, 항해기간은 약 16일로 제시됨. 호주 시드니에서 부산까지의 운임

은 2,000달러, 항해기간은 약 20일임. 이에 비해 EU 주요국에서 부산까지의 항해기간은 55~70일 수준으로 훨씬 길게 제시됨.

- 운임만 놓고 보면 유럽발 운송비가 kg당 200~300원 수준으로 평가되어 쇠고기 수입가격 전체를 결정할 정도의 비용은 아님. 그러나 항해기간은 미국·호주산과 비교할 때 EU산 쇠고기의 중요한 제약 요인임. 냉동 쇠고기는 장기 운송이 가능하지만, 항해기간이 길수록 재고 회전, 운송 중 온도관리, 자금 회수 기간, 물류계획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음. 특히 냉장 쇠고기의 경우 EU에서 한국까지의 긴 항해기간은 품질 유지와 유통기한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큼.

3.6. 지정학적 리스크와 항로 변화

- 최근 글로벌 해상운송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란 전쟁, 수에즈 운하 통항 리스크 등이 운임과 항해기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중동지역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유럽 주요국에서 아시아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항로는 이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노선보다 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하는 노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전쟁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운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항해기간은 과거 수에즈 경유 시 37~45일 수준에서 현재 55~70일 수준으로 크게 늘어남.
- EU산 쇠고기 수입에서 이 변화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운임 증가보다 더 큰 문제는 운송기간의 장기화임. 항해기간이 늘어나면 냉동컨테이너의 장기 사용에 따른 장비 회전율이 낮아지고,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재고 확보 시점과 판매 시점 간의 시간 차이가 커짐. 또한 물류 지연이 발생할 경우 국내 도착 시점이 불확실해져 외식·가공업체의 원료육 조달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EU산 쇠고기의 한국 시장 진입 가능성을 평가할 때는 단순 운임뿐 아니라 항로 안정성, 환적 여부, 항해기간, 냉동컨테이너 수급, 선사 배선 안정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함. 특히 폴란드처럼 환적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기항 국가보다 물류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음.

5

우리나라의 쇠고기 산업 현황

1. 소 사육 현황 및 쇠고기 생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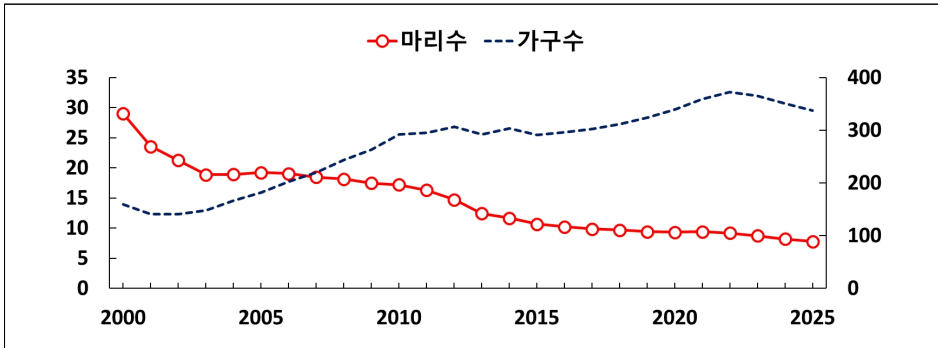
- 우리나라 쇠고기 산업은 국내 한육우 생산 기반과 수입 쇠고기 공급이 함께 수급을 형성하는 구조임. 최근 한육우 산업은 2022년 사육 마릿수 정점 이후 감소 국면에 들어섰으며, 도축 마릿수도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산 쇠고기 생산량은 감소하는 반면, 한우 도매가격은 회복되는 흐름을 보임.

1.1. 한육우 사육 마릿수 및 사육농가 변화

-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2022년 372만 7천 마리로 증가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됨. 2023년에는 364만 8천 마리, 2024년에는 350만 7천 마리, 2025년에는 336만 8천 마리로 감소함. 2022년 고점 대비 35만 9천 마리 감소하여 사육 기반이 축소되는 흐름이 나타남.

〈그림 5-1〉 한육우 사육농가수와 사육 마릿수

단위: 만 마리, 만 호



자료: KOSIS(<https://kosis.kr>), 검색일: 2026. 3. 28.

○ 사육농장 수는 2021년 9만 3,845호에서 2025년 7만 7,490호로 1만 6,355호 감소함. 사육 마릿수 감소율보다 사육농가수 감소율이 더 커 규모화가 지속되고 있음. 소규모 농가의 이탈과 농가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표 5-1〉 소 사육 농장 수 및 사육 마릿수

단위: 마리, 호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마릿수	3,589,459	3,726,547	3,648,093	3,507,239	3,367,631
농장 수	93,845	91,592	87,145	81,941	77,490
농장당 마릿수	38.2	40.7	41.9	42.8	43.5

자료: KOSIS(<https://kosis.kr>), 검색일: 2026. 3. 28.

1.2. 도축 마릿수 및 쇠고기 생산 동향

○ 사육 마릿수 감소와 함께 도축 마릿수도 감소함. 2025년 한우 도축 마릿수는 94만 8천 마리로, 전년 대비 4.3% 감소한 수준임. 이는 2024년까지 이어졌던 높은 도축 수준이 조정 국면에 들어섰음을 의미함.

○ 쇠고기 생산량은 2025년 31만 3천 톤으로, 전년 대비 2.5% 감소함. 2024년 생산량은 32만 1천 톤이었으나, 2025년에는 도축 마릿수 감소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31만 3천 톤으로 축소됨. 다만 평년 생산량 28만 5천 톤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임.

〈표 5-2〉 소 도축 및 쇠고기 수급

단위: 천 톤(정육 기준), %, kg

구분	2025	2024	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총공급량	780	766	736	1.8	6.0
생산량	313	321	285	-2.5	9.7
수입량	468	446	451	4.9	3.7
자급률	40.1	41.9	39.2	-1.8%P	1.9%P
1인당소비가능량	15.2	14.9	14.5	2.0	4.6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6), 농업전망 2026.

1.3. 쇠고기 수입 및 소비가능량

○ 2025년 쇠고기 수입량은 46만 8천 톤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함. 2024년 수입량은 44만 6천 톤이었으나, 2025년에는 국내 생산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수입량이 증가함. 2025년 수입량은 국내 생산량 31만 3천 톤보다 약 15만 5천 톤 많음.

○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은 미국산과 호주산에 의존하고 있음. 2025년 수입 비중은 미국산 46.8%, 호주산 46.6%로 두 국가의 비중이 절대적임. 뉴질랜드산은 3.4%, 캐나다산은 2.5%, 기타 국가는 0.7% 수준임.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은 미국과 호주에 매우 집중된 구조이며, EU산을 포함한 타 지역의 쇠고기 수입 실적은 아직 제한적임.

○ 2025년 1인당 쇠고기 소비가능량은 15.2kg로, 2024년 14.9kg보다 2.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평년 14.5kg과 비교해도 4.6% 높은 수준임. 이는 국내 쇠고기 소비 기반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을 보여줌. 다만 2026년에는 수입량 감소와 국내 생산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1인당 소비가능량이 14.1kg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⁸⁾

1.4. 가격 동향 및 전망

○ 2025년 한우 거세우 평균 도매가격은 kg당 1만 9,645원으로, 전년 대비 9.4% 상승함. 이는 도축 마릿수 감소와 국내산 쇠고기 공급 축소 기대가 가격 회복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됨. 2022년 이후 사육 마릿수 감소와 송아지 생산 감소가 누적되면서 공급 감소 압력이 형성되었고, 2025년에는 도축 감소가 본격화되며 도매가격 상승으로 연결됨.

○ 가격 상승은 한우 농가의 수익성 개선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소비자 부담 증가와 수입 쇠고기 수요 확대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 특히 한우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외식업체와 가공업체는 원가 절감을 위해 수입 쇠고기 활용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한우 가격 회복은 국내 생산자에게는 긍정적이지만, 수입 쇠고기 시장에는 추가적인 수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음.

⁸⁾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6), 농업전망 2026.

1.5. EU산 쇠고기 수입허용과의 관련성

- 최근 우리나라 쇠고기 시장은 한우 공급 감소와 수입 쇠고기 의존도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 2025년 기준 국내 쇠고기 총공급량 중 수입량은 국내 생산량을 크게 상회하며, 미국산과 호주산 쇠고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조건에서 EU 5개국산 쇠고기 수입허용은 국내 쇠고기 시장 전체를 단기간에 변화시키기보다는, 기존 수입 쇠고기 시장 내부의 원산지 선택지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EU산 쇠고기가 한우 고급육 시장과 직접 경쟁할 가능성은 제한적임. 국내 쇠고기 시장은 원산지, 등급, 냉장·냉동 여부, 부위, 유통채널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으며, 한우는 고급 구이용과 선물·외식 시장에서 독보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 반면 신규 EU산 쇠고기는 초기에는 냉동육, 외식용, 가공용, 일부 중저가 부위 시장에서 기존 수입산과 경쟁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EU 5개국산 쇠고기의 수입허용 영향은 한우 가격을 직접적으로 크게 낮추기보다는, 수입 쇠고기 시장 내 원산지 간 경쟁을 확대하고 외식·가공용 원료육 선택지를 늘리는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큼. 특히 국내산 공급 감소와 한우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국면에서는 수입업체와 실수요업체가 가격 경쟁력 있는 신규 공급원을 찾을 유인이 커질 수 있으므로, EU산 쇠고기의 시장 진입 가능성은 국내 수급 여건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쇠고기 수입 현황⁹⁾

2.1.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

○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은 호주산과 미국산에 집중되어 있으며, 2025년 전체 쇠고기 수입량의 92.4%를 호주산과 미국산이 차지함.

- 호주산 쇠고기 수입량은 2025년 23만 5천 톤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으며, 2021년 이후 연평균 4.5%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2025년 22만 9천 톤으로 전년 대비 0.7% 감소했으며, 2021년 이후 연평균 3.0%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호주산 쇠고기 수입량 비율은 2021년 39.1%에서 2025년 46.8%로 7.7%p 증가한 반면, 미국산 비율은 51.3%에서 45.6%로 5.7%p 감소함.
- 쇠고기 수입단가의 경우, 호주산은 2025년 6.8달러/kg로 미국산(9.6달러/kg)의 약 71% 수준으로 저렴하며, 2021년 이후 단가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호주산과 미국산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뉴질랜드와 캐나다에서 1~2만 톤 수준의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으며, 중남미(멕시코, 우루과이, 칠레, 아르헨티나)와 EU(덴마크, 아일랜드) 등에서 소량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뉴질랜드산 쇠고기 수입량 비율은 2021년 5.0%에서 2025년

⁹⁾ 본 절은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입 기준 쇠고기 HS코드(0201100000, 0202100000, 0201201000, 0202201000, 0201209000, 0202209000, 0201300000, 0202300000, 0206100000, 0206210000, 0206220000, 0206291000, 0206292000, 0206299000, 0210201000, 0210209000, 0210991010, 1602501000, 1602509000)를 기준으로 작성한 내용이며, 분석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임.

4.0%로 1.0%p 감소한 반면, 캐나다산 수입량 비율은 2021년 2.0%에서 2025년 2.7%로 0.7%p 증가함.

〈표 5-3〉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 동향

단위: 천 톤, 달러/kg, %

구분		2021	2022	2023	2024 (A)	2025 (B)	증감률	
							B/A	연평균
호주	수입량	197 (39.1)	184 (36.3)	206 (40.7)	223 (45.0)	235 (46.8)	5.8	4.5
	수입단가	7.0	8.1	6.7	6.6	6.8	4.4	-0.6
미국	수입량	259 (51.3)	265 (52.2)	255 (50.5)	231 (46.7)	229 (45.6)	-0.7	-3.0
	수입단가	8.4	9.9	8.7	9.7	9.6	-0.6	3.6
뉴질랜드	수입량	25 (5.0)	27 (5.3)	22 (4.3)	21 (4.2)	20 (4.0)	-3.1	-5.3
	수입단가	5.0	6.3	5.5	5.1	5.3	4.6	1.6
캐나다	수입량	10 (2.0)	19 (3.8)	15 (2.9)	14 (2.9)	14 (2.7)	-5.9	8.2
	수입단가	6.3	8.5	6.8	7.8	7.4	-5.0	4.1
멕시코	수입량	8 (1.6)	8 (1.6)	5 (1.0)	3 (0.6)	2 (0.5)	-26.5	-27.6
	수입단가	4.3	5.2	4.6	5.0	5.4	8.2	5.5
우루과이	수입량	3 (0.5)	2 (0.4)	2 (0.3)	1 (0.2)	1 (0.1)	-49.7	-33.6
	수입단가	5.0	5.7	5.3	5.7	4.2	-25.1	-3.8
칠레	수입량	1 (0.2)	1 (0.1)	1 (0.1)	1 (0.1)	0 (0.1)	-22.9	-14.2
	수입단가	4.0	4.6	4.3	3.7	4.1	11.5	0.7
덴마크	수입량	0.5 (0.1)	1.0 (0.2)	0.5 (0.1)	0.8 (0.2)	0.4 (0.1)	-44.0	-1.3
	수입단가	5.7	5.8	4.6	5.3	6.1	16.3	1.7
아르헨티나	수입량	1.1 (0.2)	0.8 (0.2)	0.4 (0.1)	0.4 (0.1)	0.3 (0.1)	-19.7	-26.7
	수입단가	5.6	6.6	6.7	4.4	3.6	-18.1	-10.5
아일랜드	수입량	-	0.022 (0.004)	-	0.001 (0.000)	0.234 (0.047)	-	-
	수입단가	-	3.4	-	12.2	7.9	-	-
기타	수입량	0.20	0.18	0.10	0.10	0.04	-	-
전체	수입량	505 (100.0)	507 (100.0)	505 (100.0)	495 (100.0)	503 (100.0)	1.6	-0.1
	수입단가	7.5	8.9	7.6	8.0	8.1	1.0	1.7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plus.un.org/TradeFlow>), 검색일: 2026. 1. 28.

2.2. 우리나라와 일본의 쇠고기 수입 동향 비교¹⁰⁾

○ 냉장 및 냉동 쇠고기 HS코드(0201/0202)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량을 살펴보면, 2024년 46만 1천 톤으로 호주산 냉동 쇠고기 수입 증가 영향으로 2020년 이후 연평균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냉동 쇠고기 수입량은 2024년 36만 4천 톤으로 2020년 이후 연평균 1.3% 증가함. 국가별로는 호주산이 17만 4천 톤으로 연평균 6.6% 증가한 반면, 미국산은 15만 6천 톤으로 3.6% 감소함.
- 우리나라의 냉장 쇠고기 수입량은 2024년 9만 8천 톤으로 2020년 이후 연평균 0.3% 감소함. 국가별로는 미국산이 6만 6천 톤으로 연평균 1.1% 증가한 반면, 호주산은 3만 2천 톤으로 연평균 2.7% 감소함.

〈표 5-4〉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 동향(HS 0201/0202)

단위: 천 톤, %

구분	2020	2021	2022	2023 (A)	2024 (B)	증감률	
						B/A	연평균
냉동 쇠고기	345	351	371	371	364	-2.1	1.3
호주	135	139	131	158	174	10.2	6.6
미국	180	173	190	176	156	-11.5	-3.6
뉴질랜드	15	20	22	17	17	-3.6	2.4
캐나다	5	9	19	14	13	-9.9	22.9
멕시코	8	7	7	4	3	-36.9	-22.0
냉장 쇠고기	99	118	104	102	98	-4.0	-0.3
미국	63	77	67	69	66	-5.6	1.1
호주	35	40	36	32	32	-1.2	-2.7
캐나다	0.5	0.5	0.2	0.1	0.3	207.4	-7.4
뉴질랜드	0.1	0.1	0.0	0.0	0.0	-25.8	-53.6
우루과이	0.0	0.0	0.0	0.0	0.0	-	-
총합계	443	469	475	473	461	-2.5	1.0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plus.un.org/TradeFlow>), 검색일: 2026. 1. 28.

¹⁰⁾ 본 절의 냉장 및 냉동 쇠고기 HS코드(0201/0202) 기준 교역 동향은 국가별 비교를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함.

○ 일본의 경우, 냉장 및 냉동 쇠고기 HS코드(0201/0202)를 기준 쇠고기 수입량은 2024년 52만 6천 톤으로 호주 및 미국산 냉장 쇠고기 수입 감소 영향으로 2020년 이후 연평균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의 냉동 쇠고기 수입량은 2024년 32만 9천 톤으로 2020년 이후 연평균 0.7% 감소함. 국가별로는 호주산이 15만 3천 톤으로 연평균 0.8% 소폭 증가한 반면, 미국산은 10만 톤으로 6.4% 감소함.
- 일본의 냉장 쇠고기 수입량은 2024년 19만 7천 톤으로 2020년 이후 연평균 6.8% 감소함. 국가별로는 호주산이 9만 7천 톤으로 연평균 1.1% 감소, 미국산이 8만 3천 톤으로 연평균 9.7% 감소함.

〈표 5-5〉 일본의 쇠고기 수입 동향(HS 0201/0202)

단위: 천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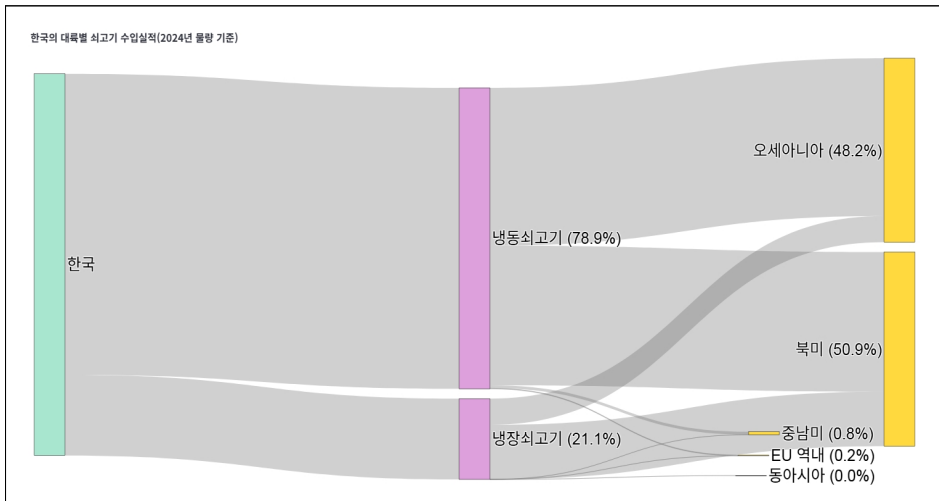
구분	2020	2021	2022	2023 (A)	2024 (B)	증감률	
						B/A	연평균
냉동 쇠고기	339	321	343	305	329	8.0	-0.7
호주	149	139	133	122	153	25.0	0.8
미국	130	97	111	107	100	-6.8	-6.4
캐나다	28	37	38	35	30	-16.0	1.3
뉴질랜드	14	21	24	19	26	36.6	17.2
멕시코	10	14	21	15	11	-22.0	2.7
기타	8	13	15	6	9	-	-
냉장 쇠고기	262	264	217	199	197	-1.1	-6.8
호주	114	99	78	86	97	13.0	-4.0
미국	125	136	113	97	83	-14.1	-9.7
뉴질랜드	6	7	6	5	8	55.2	4.7
캐나다	10	13	10	7	6	-9.5	-11.6
멕시코	4	5	6	3	2	-25.8	-15.0
기타	2	4	4	2	1	-	-
총합계	600	585	560	504	526	4.4	-3.2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plus.un.org/TradeFlow>), 검색일: 2026. 1. 28.

○ 우리나라와 일본의 대륙별 쇠고기 수입구조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냉동 쇠고기를 중심으로 북미(미국)와 오세아니아(호주) 대륙의 수입 의존도가 비슷한 반면, 일본은 냉장 쇠고기와 오세아니아 대륙 수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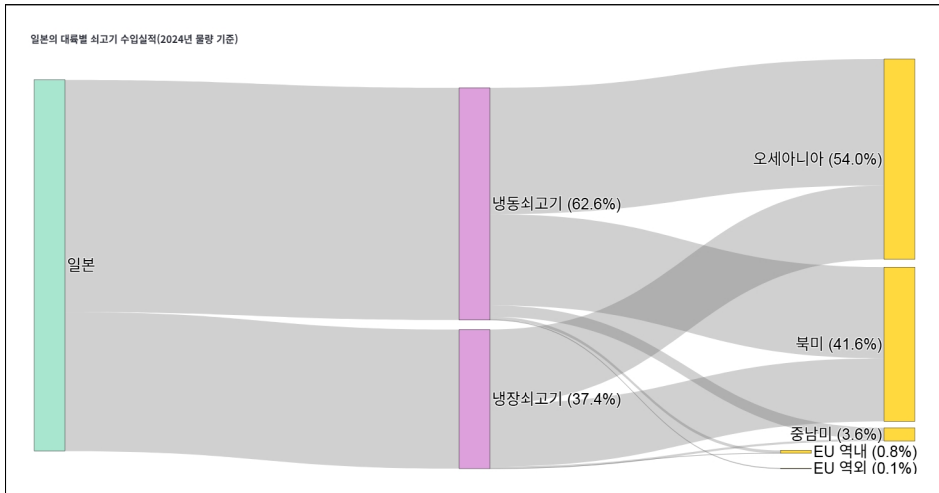
-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량 비율은 냉동 쇠고기가 78.9%로 냉장 쇠고기(21.1%)에 비해 높으며, 대륙별 수입 비율은 북미(50.9%)와 오세아니아(48.2%)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의 쇠고기 수입량 비율은 냉동이 62.6%, 냉장이 37.4%로 나타났으며, 대륙별로는 오세아니아가 54.0%로 북미(41.6%)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5-2〉 한국 대륙별 쇠고기 수입실적(HS 0201/0202)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plus.un.org/TradeFlow>), 검색일: 2026. 1. 28.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5-3〉 일본의 대륙별 쇠고기 수입실적(HS 0201/0202)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plus.un.org/TradeFlow>), 검색일: 2026. 1. 28.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6

EU산 쇠고기 수입허용에 따른 파급영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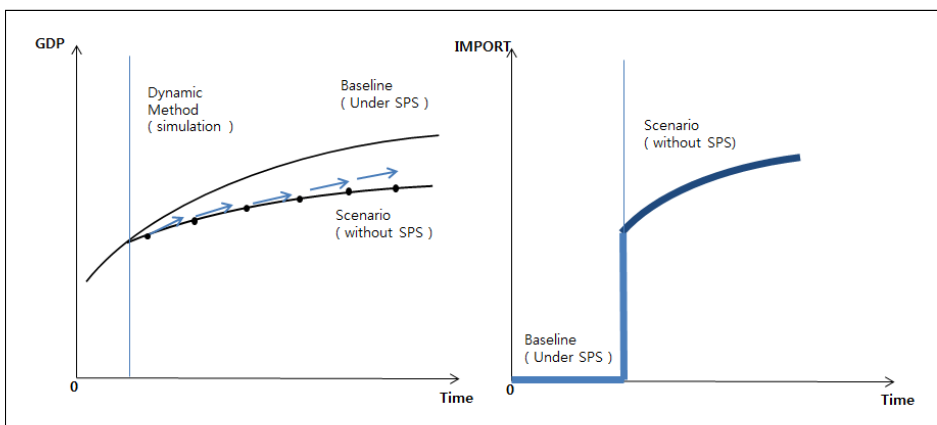
1. 분석 시나리오

- EU산 쇠고기 수입허용에 따른 파급영향 분석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운영하는 KREI-KASMO를 활용함.
 - KREI-KASMO는 크게 6개 부문(주요 거시변수, 투입재 가격, 재배업, 축산업, 농가인구, 총량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FTA 및 다자간 협상으로 인한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 효과 계측이 가능함.
- EU산 쇠고기 수입허용에 따른 파급영향은 SPS 조치로 인해 EU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지 않았을 경우(베이스라인)와 SPS 조치 해제로 인해 수입이 허용될 경우(시나리오)의 연차별 전망치를 비교하여 산출하는 동태적 분석(dynamic analysis) 방법을 선택함.
- SPS 조치 해제에 따른 EU산 쇠고기의 수입량 증가는 국내시장에 초과공급(excess supply)으로 전환되고 시장청산 균형가격(equilibrium price)은 하락하며, 가격 하락은 동기 또는 차기의 사육 마릿수 및 생산량을 감소시킴.

○ 이에 따라 국내 농업생산액은 감소하게 되며, 농업생산액 감소는 직접피해효과와 간접피해효과로 구분할 수 있음.

- 직접피해 효과는 국내 쇠고기의 균형가격 하락 폭과 국내 생산량 감소폭의 곱인 국내 생산액 감소로 나타남.
- 간접피해효과는 쇠고기의 균형가격 하락이 쇠고기 소비 대체재가 되는 품목의 가격을 하락시켜 타 품목의 수급균형에 영향을 미침.

〈그림 6-1〉 SPS 조치 해제 시 영향 분석 방법



자료: 한석호 외(2017).

○ EU산 쇠고기 수입허용 영향 분석 대상 국가는 독일, 폴란드, 스페인, 벨기에, 스웨덴 5개국이며, EU산 쇠고기 수입허용 시기는 2026년으로 가정하고 분석 기간은 10년(2026~2035년)으로 설정함.

○ EU 5개국 쇠고기 수입 개방 분석을 위하여 EU 5개국에 대한 수입수요함수의 추정이 선행되어야 함. 현재 해당 국가의 수입실적이 없으므로 가상의 수입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이 필요함. 가상의 데이터 생성을 위하여 시나리오를 도입함.

○ KREI-KASMO의 쇠고기 수입 모듈은 미국, 호주, 기타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존 수입이 허용된 EU 회원국은 기타국에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시나리오에 따라 EU 5개국이 모형에 반영되면, 미국, 호주, EU 5개국, 기타국으로 구성됨.

- EU 5개 개별국가의 쇠고기 특성과 가격이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가별로 모형에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5개국을 하나로 합산하여 반영하는 방식을 선택함. 따라서 모형에 반영된 EU 5개국은 하나의 국가인 것처럼 취급됨.
-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은 호주산과 미국산에 집중됨. 2025년 기준 두 국가로부터 수입이 92.4%를 차지함. 이 외에 뉴질랜드와 캐나다에서 1~2만 톤 수준의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으며, 중남미(멕시코, 우루과이, 칠레, 아르헨티나)와 EU(덴마크, 아일랜드) 등에서 소량 수입함<표 5-3>.
- 소수의 국가(미국과 호주, 확장하면 뉴질랜드, 캐나다)에 전적으로 의존하므로 4개국 외 국가의 비중 합계가 1%에 미치지 못함. EU 5국에 대한 수입 허용이 이루어지더라도 이와 같은 수입구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EU 5국 개별 수입합수를 추정하더라도 실익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수입합수를 추정하기 위한 가상의 수입데이터를 생성하는 데에도 제약이 큰 상황임.

○ 본 연구에서는 EU산 쇠고기 수입수요함수 추정을 위하여 시나리오 1, 2를 채택함.

- 시나리오 1: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쇠고기 수출국 중 EU 5개국과 가장 유사할 것으로 판단한 국가(군)의 수입 데이터 사용
- 시나리오 2: 우리나라와 쇠고기 선호가 유사한 국가(일본)의 EU 5개국 쇠고기 수입 데이터 사용

〈표 6-1〉 EU산 쇠고기 수입허용 시나리오

구분		내용
시나리오 1	1	기존 EU산 수입허용 국가(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프랑스)와 쇠고기 품질이 같다는 가정으로 EU산 수입수요함수 추정
	2	우루과이산 쇠고기와 품질이 같다는 가정으로 EU산 수입수요함수 추정
시나리오 2		일본의 EU산 쇠고기 수입실적을 통한 초기 수입량 추정

자료: 저자 작성.

○ 시나리오 1은 한석호 외(2017)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EU산 쇠고기의 품질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반응을 두 가지로 가정함.

- 시나리오 1-1: EU산 쇠고기 품질은 기존 EU산 쇠고기 수입허용 국가(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프랑스)와 동일함.
- 시나리오 1-2: EU산 쇠고기 품질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우루과이산 쇠고기와 동일함.

○ KREI-KASMO의 수입수요함수 형태는 국가별 기대수입량이 국내가격과 환율과 관세율을 적용한 해당국의 수입가격, 수입 경쟁국 수입가격에 의해 결정되도록 구성되며, 이는 아래 식 (1), (2)와 같음.

$$\begin{aligned}
 M_{US,t} &= f(+P_{D,t}, -P_{US,t}, +P_{AUS,t}, +P_{RE,t}, +P_{EU,t}) \\
 M_{AUS,t} &= f(+P_{D,t}, +P_{US,t}, -P_{AUS,t}, +P_{RE,t}, +P_{EU,t}) \\
 M_{RE,t} &= f(+P_{D,t}, +P_{US,t}, +P_{AUS,t}, -P_{RE,t}, +P_{EU,t}) \\
 M_{EU,t} &= f(+P_{D,t}, +P_{US,t}, +P_{AUS,t}, +P_{RE,t}, -P_{EU,t})
 \end{aligned} \tag{식 (1)}$$

$$\begin{pmatrix} \ln M_{US,t} \\ \ln M_{AUS,t} \\ \ln M_{RE,t} \\ \ln M_{EU,t} \end{pmatrix} = \begin{pmatrix} \beta_0 & \beta_1 & \beta_2 & \beta_3 & \beta_4 \\ \beta_5 & \beta_6 & \beta_7 & \beta_8 & \beta_9 \\ \beta_{10} & \beta_{11} & \beta_{12} & \beta_{13} & \beta_{14} \\ \beta_{15} & \beta_{16} & \beta_{17} & \beta_{18} & \beta_{19} \end{pmatrix} \begin{pmatrix} 1 \\ \ln(P_{D,t}/P_{US,t}) \\ \ln(P_{D,t}/P_{AUS,t}) \\ \ln(P_{D,t}/P_{RE,t}) \\ \ln(P_{D,t}/P_{EU,t}) \end{pmatrix} \tag{식 (2)}$$

$M_{US,t}$: 미국산 수입량, $M_{AUS,t}$: 호주산 수입량, $M_{EU,t}$: EU산 수입량, $M_{RE,t}$: 기타산 수입량,

$P_{D,t}$: 국산 소비자가격, $P_{US,t}$: 미국산 가격, $P_{AUS,t}$: 호주산 가격, $P_{EU,t}$: EU산 가격, $P_{RE,t}$: 기타산 가격

- 시나리오 1에서 가상의 EU산 쇠고기 수입량은 KREI-KASMO의 기타국 수입수요함수 탄성치를 이용하여 동태적 사후영향평가(dynamic ex-post assessment) 방법을 통해 추정함.¹¹⁾
- 이후 가상의 수입량(EU산 쇠고기 수입량)을 이용하여 도출한 수입수요함수(1)를 KREI-KASMO 모형에 반영하고, 수입허용 예상 시점에 수입수요함수가 품목의 수급모형에 반영되도록 하는 사전영향평가 시뮬레이션을 수행함.
 - SPS 수입금지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한 가상의 EU산 쇠고기 수입량 추정을 통해 무역창출효과 외에 미국, 호주, 기타 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이 줄어드는 무역전환효과도 계측함.
- 시나리오 2는 우리나라와 쇠고기 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일본의 EU산 쇠고기 수입실적을 참고하여 초기 수입량을 설정함.
 - 일본의 EU산(폴란드, 독일, 벨기에, 스페인, 스웨덴) 쇠고기 수입은 2015년에 처음 이루어졌으며, 최초 5개년(2015~2019년) 평균 726톤이 수입됨.
 - 2015~2019년 평균 우리나라의 전체 쇠고기 수입량은 38만 톤, 일본은 57만 톤으로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량은 일본의 67.1%에 해당함.
 - 일본의 EU산(폴란드, 독일, 벨기에, 스페인, 스웨덴) 쇠고기 초기 수입량 평균과 우리나라와 일본의 쇠고기 수입량 비율을 토대로 487톤의 초기 수입량을 설정함.
- 설정된 EU산 쇠고기 초기 수입량은 KREI-KASMO의 쇠고기 수입수요함수 중 기타국에 포함시켜 시뮬레이션을 수행함.

¹¹⁾ SPS 조치 해제에 따른 파급영향 및 사후영향평가에 대한 자세한 분석방법론은 “SPS 조치 해제에 따른 EU산 쇠고기 수입개방 영향 분석(한석호 외, 2017)” 및 “기 체결 FTA 사후영향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한석호 외, 2015)”를 참고하기 바람.

- 우리나라와 일본의 소비자 선호, 수입량 비율 등을 고려하여 EU산 쇠고기는 미국산 및 호주산과 차별되며, 기타국(뉴질랜드, 멕시코, 캐나다 등)의 쇠고기와 유사성이 높다고 판단함.

〈표 6-2〉 우리나라와 일본의 쇠고기 수입실적

단위: 천 톤

구분	2015	2017	2019	2021	2024
한국	296	379	444	471	463
일본	503	581	625	592	538
EU산 수입허용 요청 국가	0.670	0.699	1.765	8.087	3.457
폴란드	0.670	0.698	1.763	7.672	2.926
스페인	-	-	-	0.412	0.528
독일	-	0.001	0.002	0.003	0.003

주: 일본의 벨기에산 및 스웨덴산 쇠고기 수입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plus.un.org/TradeFlow>), 검색일: 2026. 1. 28.

2. 분석 결과

○ EU산 쇠고기 수입허용 영향 분석 결과, 10년간(2026~2035년) 한육우 생산액은 베이스라인 대비 연평균 0.06~0.1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쇠고기 수입량 증가에 따른 한우 도매가격 하락과 사육 마릿수 및 생산량 감소가 예상됨.

- EU산 쇠고기 수입 증가로 한우 도매가격은 10년간 베이스라인 대비 0.03~0.08% 하락할 것으로 분석됨.
-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한우 가격이 하락하면서 2026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쇠고기 수입 확대와 가격 하락 폭 증가에 따라 사육 마릿수 감소 폭이 점차 확대되어 10년간 연평균 0.02~0.05% 감소할 것으로 분석됨.

- 쇠고기 생산량은 수입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도축 마릿수가 증가하여 수입허용 초기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사육 마릿수 감소 영향으로 2028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베이스라인 대비 연평균 0.02~0.05% 감소할 것으로 분석됨.
- 쇠고기 수입량은 이행 초기 증가 폭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EU산 쇠고기 수입이 미국산, 호주산 및 기타국산 쇠고기 점유율 일부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증가 폭이 둔화되어 10년간 베이스라인 대비 연평균 0.04~0.0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6-3〉 EU산 쇠고기 수입허용 영향 분석: 한육우 베이스라인

단위: 억 원, 원/kg, 천 톤, 천 마리

구분		2026	2029	2031	2033	2035
시나리오 1-1 시나리오 1-2	생산액	47,068	49,137	52,053	54,350	57,530
	도매가격	17,444	17,988	18,152	18,323	18,421
	생산량	292	295	310	321	339
	수입량	476	479	512	532	535
	미국	221	222	239	249	248
	호주	215	210	224	232	236
	기타	40	47	49	51	51
	사육 마릿수	3,348	3,266	3,270	3,370	3,387
시나리오 2	생산액	46,575	45,821	47,114	48,243	50,961
	도매가격	17,219	16,904	16,939	17,020	17,256
	생산량	293	292	300	306	319
	수입량	461	482	525	552	557
	미국	213	223	242	255	254
	호주	210	216	237	251	256
	기타	38	43	45	47	47
	사육 마릿수	3,343	3,164	3,153	3,207	3,222

자료: KREI-KASMO 2024(비공개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표 6-4〉 EU산 쇠고기 수입허용 영향 분석: 한육우 분석 결과

단위: 억 원, 원/kg, 천 톤, 천 마리, %

구분		2026	2029	2031	2033	2035	베이스라인 대비 변화율 (10년 연평균)
시나리오 1-1	생산액	47,041 (-0.06)	49,106 (-0.06)	52,025 (-0.05)	54,321 (-0.05)	57,501 (-0.05)	-0.06%
	도매가격	17,432 (-0.07)	17,984 (-0.02)	18,147 (-0.03)	18,319 (-0.02)	18,417 (-0.02)	-0.03%
	생산량	292 (0.01)	295 (-0.04)	310 (-0.03)	321 (-0.03)	339 (-0.03)	-0.02%
	수입량	476	479	512	533	535	0.04%
		(0.04)	(0.04)	(0.04)	(0.04)	(0.03)	
	미국	221 (-0.04)	222 (-0.01)	239 (-0.02)	249 (-0.01)	248 (-0.01)	-0.02%
	호주	215 (-0.02)	210 (-0.01)	224 (-0.01)	232 (-0.01)	236 (-0.01)	-0.01%
	기타	40 (-0.06)	47 (-0.02)	49 (-0.02)	51 (-0.02)	51 (-0.02)	-0.03%
	EU	0.321	0.254	0.246	0.241	0.242	-
	사육 마릿수	3,347 (-0.01)	3,266 (-0.03)	3,269 (-0.02)	3,369 (-0.02)	3,386 (-0.02)	-0.02%
시나리오 1-2	생산액	47,005 (-0.13)	49,065 (-0.15)	51,987 (-0.13)	54,283 (-0.12)	57,463 (-0.12)	-0.13%
	도매가격	17,415 (-0.16)	17,978 (-0.06)	18,141 (-0.06)	18,313 (-0.05)	18,411 (-0.06)	-0.08%
	생산량	292 (0.03)	294 (-0.09)	310 (-0.07)	321 (-0.07)	338 (-0.06)	-0.05%
	수입량	476 (0.08)	479 (0.10)	512 (0.08)	533 (0.08)	535 (0.08)	0.09%
		221 (-0.09)	222 (-0.03)	239 (-0.03)	249 (-0.03)	248 (-0.03)	
	미국	221 (-0.09)	222 (-0.03)	239 (-0.03)	249 (-0.03)	248 (-0.03)	-0.05%
	호주	215 (-0.04)	210 (-0.01)	224 (-0.02)	232 (-0.01)	236 (-0.01)	-0.02%
	기타	40 (-0.13)	47 (-0.05)	49 (-0.05)	51 (-0.04)	51 (-0.05)	-0.07%
	EU	0.749	0.593	0.574	0.562	0.565	-
	사육 마릿수	3,347 (-0.02)	3,264 (-0.06)	3,268 (-0.05)	3,368 (-0.05)	3,385 (-0.05)	-0.05%

(계속)

구분		2026	2029	2031	2033	2035	베이스라인 대비 변화율 (10년 연평균)
시나리오 2	생산액	46,544 (-0.07)	45,775 (-0.10)	47,065 (-0.10)	48,192 (-0.11)	50,908 (-0.10)	-0.10%
	도매가격	17,205 (-0.08)	16,894 (-0.06)	16,928 (-0.06)	17,010 (-0.06)	17,246 (-0.06)	-0.06%
	생산량	293 (0.01)	292 (-0.04)	300 (-0.05)	306 (-0.05)	319 (-0.05)	-0.03%
	수입량	461 (0.15)	483 (0.18)	526 (0.18)	553 (0.17)	558 (0.17)	0.06%
	미국	212 (-0.07)	223 (-0.05)	242 (-0.05)	255 (-0.05)	254 (-0.05)	-0.05%
	호주	210 (-0.07)	216 (-0.05)	237 (-0.05)	251 (-0.05)	256 (-0.05)	-0.05%
	기타	38 (-0.04)	43 (-0.03)	46 (-0.03)	47 (-0.02)	47 (-0.02)	-0.03%
	EU	0.487	0.550	0.580	0.600	0.599	-
	사육 마릿수	3,342 (-0.01)	3,163 (-0.04)	3,152 (-0.04)	3,206 (-0.04)	3,220 (-0.04)	-0.04%

주: 괄호는 연도별 베이스라인 대비 변화율을 의미함.

자료: KREI-KASMO 2024(비공개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 EU산 쇠고기 수입허용으로 인해 우리나라 농업생산액은 10년간 연평균 38억 원에서 88억 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됨.

- 농업생산액은 10년 동안 베이스라인 대비 연평균 0.006~0.01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시나리오별로는 시나리오 1-2(우루과이산과 동질)가 10년간 연평균 88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나리오 2(일본 쇠고기 수입실적 참고)가 연평균 63억 원 감소, 시나리오 1-1(기존 EU산과 동질)이 연평균 38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 EU산 쇠고기 수입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수입단가가 높은 미국산을 일부

대체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식품 무역수지 적자는 소폭(39~90만 달러)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됨.

○ EU산 쇠고기 수입허용으로 인한 한육우 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29~67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농업 분야 피해의 73.3~76.6%를 차지함.

○ 한육우 외에도 소비 대체 품목인 돼지, 육계 등의 생산액 감소 피해(간접적 영향)가 예상됨.

- 돼지 생산액은 연평균 7~15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농업 분야 피해의 17.2~19.7%를 차지함.
- 육계는 연평균 1~3억 원의 생산액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농업 분야 피해의 3.8~4.4%를 차지함.

〈표 6-5〉 EU산 쇠고기 수입허용 영향 분석: 농업 부문 전체

단위: 억 원, 백만 달러, %

구분		2026	2029	2031	2033	2035	10년 연평균 (베이스라인 대비 변화율)
시나리오 1-1	생산액	-46.7	-36.4	-34.9	-34.5	-35.3	-37.7 (-0.006)
	무역수지 적자	0.52	0.32	0.36	0.32	0.34	0.39
	수출액	-	-	-	-	-	-
	수입액	-0.52	-0.32	-0.36	-0.32	-0.34	-0.39
	축산	-46.3	-36.2	-34.6	-34.2	-35.0	-37.4
	한육우	-27.0	-31.3	-28.2	-28.9	-29.0	-28.9
	돼지	-14.5	-3.7	-4.9	-4.0	-4.5	-6.5
	육계	-3.6	-0.6	-1.0	-0.9	-1.0	-1.4
	기타	-1.2	-0.5	-0.5	-0.5	-0.5	-0.6

(계속)

구분		2026	2029	2031	2033	2035	10년 연평균 (베이스라인 대비 변화율)
시나리오 1-2	생산액	-108.9	-84.9	-81.5	-80.5	-82.3	-87.9 (0.014)
	무역수지 적자	1.21	0.77	0.83	0.76	0.80	0.90
	수출액	-	-	-	-	-	-
	수입액	-1.21	-0.77	-0.82	-0.76	-0.80	-0.90
	축산	-108.1	-84.3	-80.9	-79.9	-81.7	-87.2
	한육우	-63.0	-71.9	-66.3	-67.2	-67.7	-67.2
	돼지	-33.9	-9.5	-11.0	-9.5	-10.5	-15.2
	육계	-8.4	-1.7	-2.3	-2.0	-2.3	-3.3
	기타	-2.7	-1.2	-1.2	-1.1	-1.2	-1.5
시나리오 2	생산액	-53.8	-62.2	-63.9	-65.7	-67.1	-62.5 (0.010)
	무역수지 적자	0.60	0.66	0.66	0.66	0.67	0.66
	수출액	-	-	-	-	-	-
	수입액	-0.60	-0.66	-0.66	-0.66	-0.67	-0.66
	축산	-53.3	-61.8	-63.5	-65.3	-66.6	-62.0
	한육우	-30.9	-46.1	-49.1	-51.1	-52.6	-45.8
	돼지	-16.8	-11.9	-10.9	-10.7	-10.5	-12.3
	육계	-4.2	-2.6	-2.4	-2.4	-2.4	-2.8
	기타	-1.4	-1.1	-1.1	-1.1	-1.1	-1.1

주: 괄호는 연도별 베이스라인 대비 변화율을 의미함.

자료: KREI-KASMO 2024(비공개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7

요약 및 결론

1. 요약

○ 본 연구는 독일, 폴란드, 스페인, 벨기에, 스웨덴 등 EU 5개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이 국내 쇠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됨. 우리나라는 현재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등 4개 EU 회원국에 대해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독일·폴란드·스페인·벨기에·스웨덴은 추가 수입허용 절차가 진행 중인 국가임. 수입허용 신청 5개국은 절차 진행 단계와 생산·수출 여력에서 차이가 있으나, 향후 순차적으로 수입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시장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 쇠고기 수입허용 국가: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미국, 캐나다, 칠레, 우루과이,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 수입허용 절차가 진행 중인 EU 회원국 중 독일, 폴란드, 스페인은 5단계인 수입허용 여부 결정 단계에 있으며, 벨기에와 스웨덴은 4단계인 수입위험평가 보고서 작성 단계에 있음.

○ EU27은 세계 주요 쇠고기 생산 지역 중 하나이나, 최근 소 사육 마릿수와 쇠고기 생산량은 감소하는 추세임. EU27의 소 사육 마릿수는 2020년 7,655만 마리에서 2024년 7,190만 마리로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쇠고기 생산량도 690만 톤에서 666만 톤으로 감소함. 세계 전체 소 사육 마릿수와 쇠고기 생산량이 증가한 것과 달리 EU의 생산 기반은 축소되고 있어, EU산 쇠고기는 대규모 생산 확대형 공급원이라기보다는 제한된 공급 여력 안에서 품질·가격·용도별로 시장 진입을 모색하는 쇠고기 공급원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수입허용 신청 5개국의 생산 기반은 국가별로 차이가 큼.

- 독일은 5개국 중 소 사육 마릿수와 쇠고기 생산량이 가장 크지만, 낙농 기반 비중이 높고 EU 역내 수요와 교역 의존도가 높음.
- 폴란드는 사육 규모와 생산량이 상당하고, 2024년 쇠고기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가격경쟁력과 수출 지향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국가로 평가됨.
- 스페인은 유용우 비중이 낮고 고기소 기반 비중이 높아 5개국 중 육용 기반 성격이 가장 뚜렷함.
- 벨기에와 스웨덴은 사육 및 생산 규모가 제한적이므로 대량 공급원보다는 특정 품질·부위·이미지 중심의 제한적 공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

○ EU27의 쇠고기 교역은 역내 교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2024년 EU27의 역내 쇠고기 수출량은 204만 3천 톤, 역내 수입량은 196만 6천 톤으로 역내 교역이 대부분을 차지함. 반면 역외 수출량은 49만 톤으로 비교적 규모가 작으며, 주요 수출 대상은 영국 등 유럽 인접국에 집중되어 있음. 동아시아로의 수출 비중은 매우 낮아, 우리나라 시장은 현재 EU 쇠고기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함.

- 국가별 수출 구조를 보면, 독일과 벨기에는 EU 역내 시장 의존도가 높고, 스웨덴은 전체 수출 규모 자체가 매우 작음. 폴란드는 냉장 및 냉동 쇠고기 수출 규모가 크고 수출지향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며, 스페인도 수출 기반을 보유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 시장 진입 가능성은 폴란드와 스페인이 상대적으로 크고, 독일은 생산 규모는 크지만 역내 의존도와 가격·물류 조건을 함께 고려하면 우리나라 시장에 진입할 유인이 작음. 벨기에와 스웨덴은 생산·수출 규모가 작아 국내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수출단가 측면에서는 EU 일부 국가가 미국·호주산 대비 낮은 가격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음. 2024년 기준 냉장 쇠고기 수출단가는 미국과 호주가 각각 11.1달러/kg, 10.4달러/kg 수준인 반면, 폴란드 6.6달러/kg, 스페인 6.3달러/kg, 독일 5.4달러/kg, 벨기에 4.9달러/kg 수준임. 냉동 쇠고기의 경우에도 폴란드, 스페인, 벨기에 등은 미국산보다 단가가 낮음.
-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시장은 미국산과 호주산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량은 52만 6천 톤이며, 냉동 쇠고기가 78.9%, 냉장 쇠고기가 21.1%를 차지함. 대륙별로는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 의존도가 높고, EU산 쇠고기의 비중은 아직 미미함. 이러한 구조를 고려할 때 EU 5개국산 쇠고기가 수입허용되더라도 초기에는 전체 수입시장 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기보다는 기존 수입육 시장 내부에서 원산지 선택지를 일부 확대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KREI-KASMO를 활용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EU산 쇠고기 수입허용이 국내 한육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방향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나, 규모 측면에서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2026~2035년 10년간 한육우 생산액은 베이스라인 대비 연평균 0.06~0.13% 감소하고, 한우 도매가격은 0.03~0.08%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됨. 사육 마릿수는 0.02~0.05%, 생산량은 0.02~0.0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쇠고기 수입량은 0.04~0.09%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EU산 쇠고기 수입 확대는 국내 시장에 초과공급 압력을 발생시켜 한우 가격 하락과 생산액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다만 EU산 쇠고기 수입 증가분의 상당 부분은 미국산, 호주산 및 기타국산 수입육의 일부를 대체하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큼. 따라서 국내 한우 산업에 대한 직접 충격은 제한적이나, 수입육 시장 내부에서는 원산지 간 가격경쟁과 유통채널별 대체가 발생할 수 있음.
- 농업부문 파급효과 분석에서도 한육우 부문의 생산액 감소가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남. 시나리오별로 한육우 생산액 감소가 발생하고, 돼지·육계 등 대체 축종에도 간접 영향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다만 전체 농업생산액 대비 변화율은 크지 않아, EU산 쇠고기 수입허용의 영향은 거시적 농업부문 전체 보다는 한육우 및 수입육 시장 내부의 경쟁구조 변화로 보는 것이 적절함.

2. 결론

- 본 연구의 분석 결과, EU 5개국산 쇠고기 수입허용은 국내 쇠고기 시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단기간에 미국산·호주산 중심의 수입구조나 한우 중심의 고급육 시장을 급격히 변화시킬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됨. EU산 쇠고기 공급은 제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시장 진입은 국가별 수입허용 절차, 수출작업장 승인, 검역증명서 협의, 질병 발생 여부, 가격경쟁력, 물류비, 부위 구성, 국내 소비자 인지도에 의해 결정될 것임.

○ 수입허용 절차 측면에서는 독일, 폴란드, 스페인이 가장 앞선 국가군임. 그러나 이들 국가도 아직 실제 수입이 가능한 단계는 아니며, 수입위생조건 협의와 고시, 수출작업장 승인, 검역증명서 협의가 완료되어야 함. 벨기에와 스웨덴은 위험평가 단계에 있어 단기 수입 가능성은 독일·폴란드·스페인보다 낮음. 따라서 향후 정책 검토에서는 5개국을 동일한 위험 또는 동일한 시장 영향으로 평가하기보다, 절차 진행 단계와 공급 여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공급 가능성 측면에서는 폴란드와 스페인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큼.

- 폴란드는 생산량 증가와 수출지향성, 비교적 낮은 수출단가를 바탕으로 냉동육, 외식육, 가공육 원료육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음.
- 스페인은 유용우 비중이 낮고 육용 기반이 뚜렷하며, 생산량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일정한 공급원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독일은 생산 규모가 크지만 낙농 기반 비중과 역내 시장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한 실질 수출 여력은 제한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벨기에와 스웨덴은 생산 및 수출 규모가 작아 국내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음.

○ 국내 시장 측면에서는 EU산 쇠고기의 진입 가능 영역을 한우 고급육 시장보다 수입육 시장에서 찾는 것이 타당함. 한국 시장에서 한우는 고급 구이용, 선물용, 외식육 고급육 시장에서 독자적인 원산지 프리미엄을 보유하고 있음. 반면 EU 5개국산 쇠고기는 국내 소비자의 원산지 인지도와 품질 이미지가 낮고, 기존 미국산·호주산의 유통망과 브랜드 인지도가 강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냉동육, 중저가 수입육, 외식·가공육 원료육 시장에서 제한적으로 경쟁할 가능성이 높음.

○ 시나리오 분석 결과도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함. EU산 쇠고기 수입허용은 한우 도매가격과 생산액을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그 폭은 제한적인 수준임. 전체 쇠고기 수입량은 증가하지만 증가 폭은 크지 않고, EU산 쇠고기 수입 증가분은 기존 미국산·호주산 및 기타국산 수입육의 일부를 대체하는 성격이 강함. 따라서 EU산 쇠고기 수입허용의 영향은 한우 산업 전체를 직접적으로 크게 위축시키는 효과보다는 수입육 시장 내 원산지 경쟁을 확대하고, 일부 가격 민감 시장에서 대체 압력을 높이는 효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함.

○ 다만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정책 대응 필요성이 낮다는 의미는 아님. 한우 산업은 이미 사육 마릿수 감소, 생산비 상승, 가격 변동성 확대, 소비 둔화 우려 등 구조적 불안 요인을 안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신규 수입선이 추가 되면 가격 하락 압력이 크지 않더라도 시장 심리, 유통업체의 원산지 선택, 외식·가공업체의 원료육 조달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특히 경기 둔화나 한우 가격 상승기에 가격 민감 수요가 확대될 경우, EU산 저가 또는 증가 원료육이 기존 수입육과 함께 한우 수요를 일부 대체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정책적으로는

- 첫째, EU 회원국별 수입허용 절차와 검역위험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함. EU 회원국은 하나의 단일 위생 단위가 아니므로 국가별 질병 발생, BSE 관리체계, 도축·가공장 관리 수준, 수출검역 체계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함. 이미 수입이 허용된 프랑스와 아일랜드 사례에서 보듯이,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된 이후에도 질병 발생에 따라 수입금지 또는 검역중단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 체계도 중요함.
- 둘째, 수입육 시장의 원산지별·부위별·용도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 EU산 쇠고기는 전체 수입량 기준으로는 작더라도 특정 부위, 냉동육, 외식·가공용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활용될 경우 해당 시장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음. 따라서 단순 총수입량뿐 아니라 냉장·냉동 구분, 부위별 수입량, 수입단가, 유통채널, 외식·가공업체 사용 실태를 함께 추적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한우 산업의 대응은 단순한 수입 억제 논리보다 시장 차별화와 수요 기반 강화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EU산 쇠고기가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 증저가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우는 고급육 품질관리, 원산지 신뢰, 등급·숙성·브랜드 차별화,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함. 특히 한우와 수입육의 시장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우의 가격경쟁력 제고뿐 아니라 고급육 시장에서의 비가격 경쟁력 유지가 중요함.
- 넷째, 수입허용 확대에 따른 영향 분석은 일회성 분석에 그치지 않고 갱신되어야 함. EU 5개국의 수입허용 시점, 허용 국가 조합, 실제 승인 작업장 수, 수입단가, 물류 여건, 국내 소비자 반응에 따라 시장 영향은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수입허용 절차가 진전될 때마다 국가별 공급 가능성, 수입업체 취급 의향, 기존 수입육과의 대체관계, 한우 가격 영향에 대한 보완 분석이 필요함.

○ 종합하면, EU 5개국산 쇠고기 수입허용은 국내 쇠고기 시장에 새로운 공급원을 추가하는 제도 변화이나, 그 영향은 국가별로 상이하고 전체 시장에 대한 충격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폴란드와 스페인처럼 일정한 생산·수출 기반과 가격경쟁력을 가진 국가가 실제 수입 단계에 진입할 경우, 수입육 시장 내부의 원산지 경쟁은 확대될 수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위생·검역 안전성을 전제로 수입허용 절차를 엄격히 관리하는 동시에, 한우 산업의 시장 차별화와 수입육 시장 모니터링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김윤식(2006), “부분균형모델에서 대체효과를 고려한 FTA 효과 분석: 쇠고기 시장을 중심으로”, 농업경제연구, 47(3): 31-52.
- 김충현·서홍석·이형우·김진년(2018), “쇠고기이력제 자료를 이용한 한우 수급모형 구축”, 농촌경제, 41(3): 25-50.
- 이형우·강대운·한석호(2016), “한우고기와 수입 쇠고기의 시장 차별화에 대한 실증 분석”, 농촌경제, 39(3): 1-2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6), 농업전망 2026: K-농업·농촌 대전환, 세계를 품고 미래를 열다.
- 한석호·염정완·김진년·이형우(2017), “SPS 조치 해제에 따른 EU산 쇠고기 수입개방 영향 분석”, 농촌경제, 40(3): 23-48.
- 한석호·정민국·남경수·정호연·이수환(2015), 기 체결 FTA 사후영향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P20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온라인 자료〉

- Eurostat(<https://ec.europa.eu/eurostat/databrowser/>), 검색일: 2026. 2. 3.
- FAO(<http://www.fao.org/faostat/en/#data>), 검색일: 2026. 3. 28.
- KOSIS(<https://kosis.kr>), 검색일: 2026. 3. 28.
- UN Comtrade(<https://comtradeplus.un.org/TradeFlow>), 검색일: 2026. 1. 28.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 2026. 1. 23. 법률 제20998호, 2025. 7. 22., 일부개정).
-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시행 2026. 6. 4.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6-63호, 2026. 6. 4., 일부개정).

〈참고 통계 자료〉

- 관세청(각 연도), 수출입무역통계.
- 농림축산검역본부(각 연도), 축산물 수입검역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각 연도), 축산물 등급판정 통계.
- 통계청(각 연도), 가축동향조사.

KREI

www.krei.re.kr



**EU산 쇠고기 수입허용 영향 분석:
폴란드, 독일, 스페인, 벨기에, 스웨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T.1833-5500 F.061) 820-2211



9 791161 498461
ISBN 979-11-6149-846-1